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by
Yongjangsa, Taemin in 17th Century

김지완 (Kim, Ji-Wan)*

남권희 (Nam, Kwon-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용장사 간행 불서의 분석 |
| 2. 태인의 출판문화와 용장사 연혁 | 4.1 주제별 분석 |
| 2.1 태인지역의 출판문화 | 4.2 刻手 분석 |
| 2.2 용장사 연혁 | 4.3 참여인원 분석 |
| 3. 용장사 간행 불서의 현황과 특징 | 5. 맺음말 |
| 3.1 용장사 간행 불서의 현황 | <참고문헌> |
| 3.2 용장사 간행 불서의 특징 | |

< 초 록 >

이 연구는 1635년 태인 운주산 용장사에서 간행된 14종의 불서에 대하여 서지적 분석을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도 태인에 위치한 용장사는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뒤 1630년에 지전장로와 승려 경칙 등이 뜻을 모아 중창하였고, 1635년에 계학의 주도 아래 소요 태능, 벽암 각성 등과 시주자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개관불사를 진행하여 4월에 6종, 8월에 5종, 9월에 3종을 간행하였다. 간행된 불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종의 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전류가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의식집류가 간행되었다.

둘째, 용장사 간행본에 등장하는 각수는 간행본 가운데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간기에 소임의 표기를 ‘刻子’로 기록하여 모두 12명이 확인된다. 2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간행본에서는 관심부 어미부분에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약식문자가 음각 또는 양각으로 판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식문자는 전체 55종이 확인되며 가장 많이 등장한 약명은 ‘玉’과 ‘元’으로 7종의 경전에 각각 36회, 28회 확인된다.

셋째, 용장사에서 개간한 14종의 간행본 간기에 기입된 시주자는 총 569명으로 승려 180명(31.7%), 일반인 389명(68.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행본의 施主秩은 크게 특정물품(목판, 경전 등)에 대한 대시주, 활동과 겸하여 재물을 보시한 대시주 등으로 구별된다. 경전과 관련하여 대시주를 행한 인물은 『금강경』을 시주한 李春男兩主와 4월에 간행된 판본 6종 중 5종의 경전을 대시주한 崔繼長, 神福兩主가 있다. 경전을 판각할 수 있는 목판은 法浩가 3회 시주하였으며, 먹의 재료인 松烟은 性悟와 禪淨에 의해 1회 대시주가 이루어졌다.

要語: 태인, 운주산, 용장사, 사찰 간행본, 17세기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kimjiwan7@naver.com)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공동저자)

접수일: 2017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is paper had conducted research on 14 kind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in Yongjangsa, Woonjusan, Taein in 1635 and found three following results.

First, Yongjangsa was destroyed by Japanese during the 2nd Japanese Invasion, Jungyujaeran. However in 1630, Jijeon, Gyungchik, and other following buddhist monks started reconstruction. 5 years later, Soyo Taeneung, Byuckam Gaksung and donors started woodblock engraving works under the Gaehak's conduction and published 6 kinds of books in April, 5 kinds of books in August, 3 kinds of books in March. These books were mainly about Seon Buddhism Estheticsm. Buddhist books and ritual process books took the 2nd, 3rd place.

Second, there were 12 engravers who participated in the woodblock engraving work in 1635. *Suryuckmuchapyeongdungjaeeuichalyo* and *Chonjimyongyangsuryukchaeuichanyo*'s publication record mentions 'Gakja', synonym of engraver. In addition informal letters of engravers are carved in relief or hollow relief on Oumi, Pansim in other publication except two kinds of books. There were 55 kinds of informal letters of engravers and 'Ocuk(玉)' and 'Won(元)' were appeared 36 and 28 times in 7 kinds of Buddhist books.

Third, the total number of donors was 569, 31.7% of them was monk and 68.3% of them was civilian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record. For the most part, the two main way of donation were to provide specific goods like woodblocks and buddhist books and to provide personal properties. Leechunnamyangju donated *Vajracchedika Prajnparamita Sutra* and Choigyejang and Sinbockyangju donated 5 kinds of books in 6 kinds, which were printed in April. Bubgo donated woodblocks for printing for 3 times and Sungoh and Sunjung donated Kienruss, a raw material of an ink stick.

Key words: Taein, Woonjusan, Yongjangsa, Books Published in Buddhist temple, 17th Century

1. 머리말

본 연구는 17세기 전라도 태인의 雲住山 龍藏寺에서 간행된 불서를 대상으로 서지적 분석과 함께 간행에 참여한 실무자와 각수 등을 분석한 것이다. 용장사는 현재 폐사지로 예전의 태인현 산내면(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에 위치한 사찰로 이곳에서 간행된 불서는 14종이며, 현재 전하고 있는 간본의 간행기록을 참고해 보면 모두 1635년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서의 간행은 조선 전기 刊經都監이 1461년(세조 7) 6월에 왕명으로 설치된 뒤, 불경의 언해와 간행 등을 국가에서 관장하다가 1471년(성종 2) 12월에 폐지된 이후 주로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별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하여 1990년대를 전후로 서지적 분석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연구가¹⁾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개별 사찰의 연혁과 간행 불서의 전존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간행을 주도한 인물과 간행에 참여한 각수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조선시대 개별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인쇄문화사적인 의미를 구명한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용장사’ 및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용장사 관련 기록을 검토한 허인욱의 연구와 전국의 사찰 또는 전라도 지역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를 분석한 논문에서 용장사 간행 불서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여기서 허인욱은 현재까지 알려진 용장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용장사가 신라 말 고려 초에 건립과 관련을 맺은 운주 조통에 의해 900년에서 927년 11월 사이에 창건된 사찰”²⁾로 판단하였다. 한편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해서는 남권희, 옥영정, 윤병태, 이옥금 등의 선행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는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의 서명과 그 종수만 제시하고 개별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장사 간행 불서는 단기간에 다수의 불서가 한 곳의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되는 흔치 않은 사례³⁾이며, 이는 16세기부터 많은 각수를 동원하여

1) 이옥금, “朝鮮朝 湖南 寺刹版에 關한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유탁일, “통도사 개판불서의 출판사회학적 분석; 유간기불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1990). ; 이봉렬, “京仁地域 佛書版本의 特性 및 意義,”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남권희, “『東輿備攷』의 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 노기춘, “順天 松黃寺 開板佛事に 關한 研究; 壬亂以前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 노기춘, “順天 松黃寺 開板佛事に 關한 研究; 壬亂以後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 II,”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 백혜경, “楊州地域 佛書 刊行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 손성필,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 송일기, 박지숙, “황해도 사찰 간행불서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50(2016). ;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書誌學研究』 第63輯(2015). ;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書誌學研究』 第58輯(2014). ; 이상백, “조선시대 안동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한 고찰,” 『奎章閣』 第46輯(2015). ; 임기영, “安東 廣興寺 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 임기영,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2) 허인욱, “井邑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사학』 제48호(2016), 53-54.

3) 단기간에 다수의 불서를 간행한 예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에서 8년여에 걸쳐 26종 이상이 간행된 사례가 있다. 오용섭(2015),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書誌學研究』 第63輯, 2015.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開板하는 유형⁴⁾이 17세기에 전해진 사례를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용장사에서 간행된 14종의 불서에 대한 서지적 분석과 함께 간행에 참여한 실무자와 각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태인의 출판문화와 용장사 연혁

2.1 태인지역의 출판문화

태인현은 1409년(조선 태종 9)에 太山과 仁義지역이 합쳐져 생긴 지명이다. 태산지역은 백제시대 大尸山郡이라 불렸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大山으로 1354년(고려 공민왕 3)에 太山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한편 인의지역은 백제시대 賓屈縣 賦城으로 불렸던 곳으로 757년에 賓城, 940년(고려 태조 23)에 인의로 바뀌었다. 처음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인 것은 1354년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監務官을 두어 두 현으로 다스려졌다. 이후 1409년 인의현이 태산군으로 포함되어 한 고을로 합치게 되고⁵⁾ 오랜 시간 태인현으로 다스려지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편 때 전주부 태인군으로, 1896년에는 전라북도 태인군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朝鮮總督府의 행정구역 개편 때 井邑郡에 병합되어 태인면이 되었다.

조선시대 태인현은 인쇄 출판이 활발히 진행된 지역으로, 이는 여러 사료 기록과 전존하고 있는 간행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태인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583년 許筠이 續撰한 「攷事撮要」에 「喪禮抄錄」, 「三魁堂集」, 「三魁續集」, 「程氏家熟」, 「靈川屏風書」, 「退溪屏風書」, 「容齋集」, 「八道地圖」 등 8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사촬요」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물이 남아있는 자료로 태인 靈泉寺에서 1530년에 간행한 「妙法蓮華經」과 靑龍山寺에서 1533년에 간행한 「彌陀禮懺」과 태인현에서 간행한 「高靈世稿」 등 3종이 더 전하고 있다.⁶⁾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할 1635년 용장사에서 간행된 14종의 불서와 1636년 申欽(1566-1628)의 문집인 「象村稿」의 간행⁷⁾이 되었으며, 「冊板置簿冊」(신암 貴 549), 「完營冊板目錄」(奎 7050), 「諸道冊板錄」(奎, 古 0440-3) 등의 18세기에 편찬된 책판목록을 통해 17세기 중후반부터 인쇄 출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347-349.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全羅道 泰仁縣 建置沿革.

“...仁義縣本百濟賓屈縣新羅改武城爲太山郡領縣...”

6)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書誌學報」 第30號(2006), 72-74.

7) 「象村稿」는 「象村集」, 「象村先生集」 등의 서명으로 전해지며, 1629년~1630년에 申欽의 맏아들 申翊聖에 의해 家塾에서 木活字로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문집이 널리 퍼지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1636년에 내용을 보완하여 태인현감으로 있던 從弟 申翊亮과 함께 詩山[태인의 옛 지명]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象村先生集跋文>.

<표 1> 18세기 책판목록에 기록된 태인지역 책판

책판목록	간행시기	책판명
完營 冊板目錄	1759년	吳忠烈公遺稿, 擊蒙要訣, 老峯集, 一齊集, 靈泉集, 玄谷集, 東坡集, 史略大文, 語學粉字, 竹陰集
冊板 置簿冊	18세기 중반	東坡集, 玄谷集, 靈泉集, 大文抄史略, 學語初讀粉子, 一齊集, 竹陰集
諸道 冊板錄	18세기 후반	一齊集, 擊蒙要訣, 濂洛風雅, 史要聚選

한편 18세기 말에 들어서 태인 지역에서는 책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坊刻本의 간행이 성행하여 1796년부터 180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판이 되는데, 이러한 판본들은 대구와 전주에서 재차 發刊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2>는 태인에서 간행된 방각본으로 대부분 刊行年度, 刊行地와 出版刊行者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13종⁸⁾이 전하고 있다.

<표 2> 태인지역 간행 방각본 현황

번호	서명	간행년도	간행지	출판간행자	내용
1	『增刪濂洛風雅』	1796년	태인	전이채	시집
2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	1796년	태인	전이채	시문선집
3	『史要聚選』	1799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역사인물사건
4	『事文類聚抄』	1799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백과사전류
5	『大明律詩』	1800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시집
6	『詳說古文眞寶大全』(全集)	1803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시문선집
7	『孔子通紀』	1803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공자의생애
8	『孝經大義』	1803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유교의 효사상
9	『孔子家語』(附 新刊素王事記)	1804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공자의생애
10	『童子習』	1804년	태인	전이채, 박치유	아동 교육
11	『農家集成』	1806년	무성(태인)	전이채, 박치유	농사법
12	『新刊救荒撮要』	1806년	무성(태인)	전이채, 박치유	백성구휼
13	『明心寶鑑抄』	1844년	태인	손기조	유교교양·초학자교육

2.2 용장사 연혁

1635년 4월부터 9월까지 14종의 불서를 간행한 용장사는 고려 명종대 전후로 활동한 高惇謙⁹⁾과

8) 옥영정(2006), 76-79. ; 정읍시립박물관,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관도라 태인방각본』 (정읍: 정읍시립박물관, 2016), 138-141을 참고하였다.

9) 高惇謙, <龍藏寺獨妙樓>, 『東文選』 卷13.

“絶勝峯巒玉一叢 新開小閣壓青空 憑凌洞壑清虛裏 映帶煙霞縹緲中 雪後客登銀色界 月明人臥水精宮 吾師宴坐無心處 檻外嘒嘒萬竅風”

金克己¹⁰⁾의 시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려 명종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위치는 태인현 운주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위치는 정읍시 산내면의 사내(절안)마을 부근으로 추정되며, 雲住寺로도 불린다.

용장사의 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기록으로 조선 후기 승려인 子秀(1664-1737)의 『無竟集』에 <雲住山龍藏寺事蹟記>가 있어서 그 당시 용장사의 사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 전·후기 용장사 사적에 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및 礪溪 柳馨遠(1622-1673)이 편찬한 『東國輿地志』 그리고 『東輿備攷』 등의 지리서와 지도류 그리고 조선시대 인물들이 남긴 일부 시문을 통해 용장사의 위치와 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東輿備攷』 [17세기]



『輿地圖』 [18세기 전반]

<그림 1> 「동여비고」 및 「여지도」에 수록된 용장사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운주산용장사사적기>를 중심으로 지리서와 지도류 그리고 조선 시대 인물들이 남긴 일부 시문 등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용장사의 연혁과 그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신증동국여지승람』 卷34, 全羅道 泰仁縣 ‘佛宇’ 條 ‘金克己’ 詩.

조선시대 용장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는데, 이 책의 卷34 ‘全羅道 泰仁縣 佛宇’ 및 ‘山川’ 條를 보면 용장사는 운주산에 있으며, 운주산은 태인현의 남쪽 30리에¹¹⁾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장사의 유래와 창건에 대해서는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¹²⁾와 자수스님의 『무경집』 권2 의 <운주산용장사사적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두 기록이 비록 객관적인 사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口傳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용장사의 대략적인 사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유형원의 『동국여지』 권5上의 ‘泰仁縣’ 條에 나오는 운주산과 용장사에 대한 내용이다.

- 雲住山은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그 남쪽 봉우리 石壁에 굴이 있는데 照通窟이라 하며 겨울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전하는 이야기로 三國末에 조통화상이라는 자가 그 가운데서 수행했다고 한다.
- 용장사는 운주산에 있으며 혹 운주사라고도 한다. 절 앞에 시냇물이 數丈의 폭포를 이루는데, 옛날에 그 가운데 용이 숨어 있다고 하여 이름이 그러하다. 견훤시대에 승려 조통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¹³⁾

『동국여지』는 유형원이 1656년(효종 7)에 편찬한 전국지리지로 1660년 후반까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용장사는 견훤시대에 照通이라는 승려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 사찰명은 절 앞의 폭포에 용이 숨어있기 때문에 ‘용장사’라는 사명을 붙였다고 하였다. 유형원의 기록 이외에 다음의 <운주산용장사사적기>를 통하여 용장사가 창건될 당시의 일화와 1597년 丁酉再亂으로 인해 1630년 중창하게 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 … 내가 秋月山으로부터 와서 용장사 백운암에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지인 翠玉스님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이 절의 창건은 신라 박씨 왕조에서 시작되었는데 조통 스님이 산의 경치가 金田을 크게 열 수 있다고 보고 장차 인연을 기다려 공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 각각 역사를 맡아서 香城을 우뚝 세웠으며, 鵝堂·齋舍·蜂房이 모두 스무 군대를 헤아릴 만큼 화려함과 웅장함을 다하였으니 오늘날의 운주산 용장사입니다.”
- … 신라 이후로는 흥폐를 거듭하였으나香火는 면면히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597년(丁酉)에 전쟁의 해를 입어 잿더미가 되어 청정한 사찰이 헛되어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1630년(庚午)에 智全 장로가 뜻을 같이하는 敬則 스님과 친분이 깊고 마음이 서로 화합하여 많은 재물과 여러 기술자를 모아서 새롭게 중흥하였습니다.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全羅道 泰仁縣 ‘山川’條.
“雲住山 在縣南三十里 …중략… ‘佛宇’ 龍藏寺 在雲住山”

1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 4790-51-v.1-10

13) 『동국여지』 권5上, 全羅道 泰仁縣.

“山川’ 雲住山 在縣南三十里 其南峯石壁有窟 日照通窟 僅通一人出入 俗傳 三國末 有照通和尚者 修行其中 今有小菴 … 중략… ‘寺刹’龍藏寺 在雲住山 或稱 雲住寺 寺前溪水 成瀑流數丈 舊有龍藏基中故名 相傳甄萱 時 僧照通創建 其北崖又有王朴菴.”

위의 글은 자수스님의 『무경집』에 수록된 <운주산용장사사적기>의 한 부분이다. 『무경집』은 자수스님의 제자인 慈侃스님이 대사가 입적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간행한 것이다.¹⁴⁾ 이 사적기에서도 유형원의 기록과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용장사의 창건은 신라 朴氏 왕조 때 조통화상이라는 인물이 석벽에 있는 바위동굴에서 수행하며, 인연을 기다리다가 왕과 인연이 되어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개천웅덩이에 용이 숨어서 보호해주었다는 것을 통해 용장사라는 사찰이름의 유래를 전해주고 있다.

『무경집』의 서문 뒤에 전하고 있는 <무경당대사행장>은 문인 懷瓊이 기록한 것으로 이 행장을 살펴볼 때 자수스님은 1699년부터 1710년까지 사자산 용화암을 시작으로 모악산 장불암, 청량산 서운사, 추월산 서굴, 추월산 용추사, 운주산 용장사, 광덕산 등의 여러 곳을 만행하면서 선교의 글을 강론하였다.¹⁵⁾ 그러므로 자수스님은 1699년부터 1710년 사이에 추월산 용추사를 거쳐 운주산 용장사에 들러 주지 취옥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듣고 운주산 용장사 사적기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유형원과 자수의 기록으로 용장사의 창건 내력 및 창건주가 ‘照通和尚’이라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이 기록들이 객관적인 사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창건 내력과 창건주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¹⁶⁾

3. 용장사 간행 불서의 현황과 특징

3.1 용장사 간행 불서의 현황

용장사는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뒤 1630년(인조 8)에 지전장로와 승려 敬則 등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重創하였다. 그리고 5년 뒤인 1635년(인조 13)에는 大化士 戒學의 주도하에 大禪師 逍遙太能(1562-1649), 碧巖 覺性(1575-1660) 등을 비롯하여 많은 승려와 施主者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개관불사를 진행하게 된다.

소요 태능은 13세에 白羊寺의 眞大師를 스승으로 출가하였고, 浮休 善修(1543-1615)에게 교학을 배웠으며, 淸虛 休靜(1520-1604)의 禪法을 이은 제자 가운데 한명으로 逍遙派의 開祖이다. 임란으로 소실된 지리산의 新興寺와 燕谷寺 및 담양의 龍楸寺 등을 중창하였으며, 忠淸都總攝으로 金山寺와 大興寺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호남의 불교를 부흥시킨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¹⁷⁾

14) 무경 자수 저, 김재희 옮김, 『무경집해제』, 『무경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8.

15) 무경 자수 저, 김재희 옮김, 『무경당대사행장』, 『무경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473.

16) 용장사의 창건 내력과 창건주인 조통화상에 대해서는 허인옥의 “井岫 山內 龍藏寺 관련 기록의 검토,” 『전북사학』 제48호(2016)에 자세하다.

17) 오경후, “朝鮮 中後期 金山寺와 禪教兼修 傾向,” 『불교학보』 제72호(2015), 216-219.

벽암 각성은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10세에 雪默을 스승으로 출가하였으며, 부휴 선수의 선법을 전수 받은 인물이다. 임란 당시 직접 해전에 참전하였으며 임란 이후 南漢山城의 축성 및 무주의 赤裳山城을 수축하는 등 호국 불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승려이다.¹⁸⁾ 또한 判禪教都總攝·八道都總攝·國一都總攝 등을 역임하며 전란으로 인해 훼손된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등의 대가람 중창불사¹⁹⁾ 및 능인암과 순천 송광사 등의 개관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²⁰⁾

이러한 大德 禪師들의 불사참여는 용장사의 寺格 및 역사적 가치가 당시 승려들에게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장사의 개관불사의 경우 임진·정유 양난을 거치면서 기존에 寺勢를 얼마간 유지할 수 있었던 타 사찰과는 달리 관각 장소, 간행동참자들의 房舍 등 기본적인 제반여건이 취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중창불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양한 서적을 간행한 것은 앞선 시기의 능인암, 용복사, 송광사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대규모 개관불사와는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순천 송광사의 주지 應禪이 임란으로 피해를 입은 전각의 중건을 마친 뒤(1609년) 부휴 선수(1543-1615)와 그 문도들의 주석을 간청한 점²¹⁾이나, 완주 송광사의 창건주 應浩 등 6명의 승려를 비롯한 산내 장로들이 도량불사가 끝나갈 무렵(1632년) 벽암각성을 초청²²⁾하여 법을 펼치고 사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당시의 타 사찰의 모습을 통해 대덕 선사들의 용장사 개관불사 참여가 단순히 개관불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또한 지전장로 및 경칙 등의 용장사 중창 불사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 법문 및 교화의 목적으로 초청 된 것이라면 1635년을 전후하여 용장사의 대웅전 등의 주요전각이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기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존의 용장사 간행본 가운데 개관불사를 진행하게 된 연유와 그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운주산용장사사적기>에도 중창불사의 완공이나 1635년에 이루어진 개관불사 및 태능·각성 등의 선사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 이상의 추정은 어렵다.

현재 전하고 있는 實查 가능한 용장사 간행본은 총 14종으로 다음 <표 3>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용장사 간행본의 총수는 『佛說廣本大歲經』을 1~3종으로 보는 경우와 『十地經論』 및 『勸修定慧結社文』의 간행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²³⁾

18) 전영준, “碧巖 覺性の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증창,” 『한국인물사연구』 제12호(2009), 235-236.

19)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碧巖碑銘并序>

“...諸山衆園 或淑或修 如震溪之東刹 華嚴之宏制 松廣之伽藍 乃其大者 餘可略也...”

20)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150-154.

21) 林錫珍, 『松廣寺誌』 (서울: 불일출판사, 1965), 23-26.

22) <松廣寺開創碑文>

23) 윤병태, 『韓國書誌年報』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에서 10종 ; 이옥금(1988)은 14종 ; 남권희(2002)는 14종 ; 옥영정(2006)은 13종 ; 정읍시립박물관(2016)에서 13종으로 보고 있다.

<표 3> 현존 용장사 간행본²⁴⁾

연번	간행시기	서명	권책수	소장처
1	1635년 (崇禎 8)	『誠初心學人文』	合綴 1책(完)	동국대
2		『蒙山和尚法語略錄』		동국대
3		『高峰和尚禪要』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법어사, 송광사
4		『金剛般若波羅蜜經』	2권 2책(完)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송광사
5		『楞嚴經』	10권 5책(完)	경상대, 동국대, 이화여대, 송광사
6		『大慧普覺禪師書』	1책(完)	송광사, 동국대, 원광대
7		『妙法蓮華經』	1권 1책(缺)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대, 영남대, 충남대
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동국대, 송광사
9		『佛說廣大藏經』	合綴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10		『佛說地心陀羅尼經』		
11		『天地八陽神呪經』		
12		『禪源諸詮集都序』	2권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송광사
1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송광사
1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完)	국립중앙도서관

현재 전하고 있는 14종의 용장사 간행본 불서의 판각시기를 보면, 1635년 4월에 개관한 판본 6종(43%), 8월에 개관한 판본 5종(35.6%), 9월에 개관한 판본 3종(21.4%)이다. 4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개관불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가운데 『권수정혜결사문』은 1608년(선조 41) 松廣寺에서 開刊한 『권수정혜결사문』의 번각본으로²⁵⁾ 그 판본이 근대까지 전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소장처가 불분명하다.²⁶⁾ 또한 『십지경론』도 용장사에서 판각되었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²⁷⁾ 전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하고 있는 14종의 간행본을 대상으로 하여 서지사항 및 간행본의 특징과 간행 참여자들의 성분을 분석하여 용장사의 개관불사가 가지는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4) 14종 가운데 『계초심학인문』(『몽산법어약록』 합철)과 『불설광본대세경』(『지심다라니경』·『천지팔양신주경』 합철)을 3장과 4장에서 간행기록을 기준으로 각각 1책으로 분석하였다.

25) 이종익, “普照著述의 書誌學的 解題,” 『보조사상』 제3집(1989), 154.

26) 이종익(1989), 154에서 三各山 僧伽寺에 판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채상식은 “1608년 松廣寺 重刊 『권수정혜결사문』·『계초심학인문』 연구,” 『書誌學研究』 第47輯(2010), 306에서 현전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 또한 직접 확인하고자 1989년부터 현재까지 승가사의 화재 및 도난, 타 사찰 성보박물관으로 이관, 대학도서관의 기증, 승려와 승려간의 증여 등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권수정혜결사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27) 이옥금(1988), 91.

3.2 용장사 간행 불서의 특징

3.2.1 「誠初心學人文」(동국대학교 소장)

木板本. 知訥(高麗) 述
 泰仁 : 龍藏寺, 1635年(仁祖 13)
 1册(不分卷, 33張, 合綴本). 四周單邊, 半廓 18.2×13.2cm, 8行18字, 上下內向黑魚尾 ; 28.2×17.5cm
 刊記 : 崇禎八年乙亥(1635)四月全羅道龍藏山[寺]開刊
 合綴 : 發心修行章, 自警序,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誠初心學人文」은 현재도 전통강원 沙彌교육과정 첫 단계에 배우고 있는 교재로 전존본 가운데 1400년(정종 2) 德奇庵板이 가장 이른 판본이며 이후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대부분 다른 불서와 합綴 또는 합刻되어 간행되었으며, 간기가 명시된 판본만 20여 종 이상이 전해진다.²⁸⁾ 용장사본도 <發心修行章>, <自警序>,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과 함께 합철되어 간행이 되었다. 용장사판의 판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8행 18자로 판각되어 있으나 <발심수행장>만이 8행 16자로 판각되어 있다. <발심수행장>을 제외한 4종은 1588년의 雲門寺板을 사용하여 번각한 것이고, <발심수행장>은 1633년 安邊의 釋王寺板의 印出本을 사용하여 재합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목 밑 “芬皇寺沙門 元曉述” 부분이 용장사판 <발심수행장>에서는 보이지 않아 확실한 추정이 어렵다.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 전반에 걸쳐 欄外에 시주자와 판심의 어미부분에 刻手名으로 추정되는 略名이 한자 및 한글로 기입되어 있는데, 「계초심학인문」에는 난외에 시주자명은 확인이 되지만 판심부는 훼손되어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약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음의 <표 4>는 변란 밖 시주자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誠初心學人文」 欄外 시주자 현황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장	李勤	9장	目連	17장	帛之	25장	金石[]世
2장	風[]	10장	崔亓世	18장	太玄	26장	李金伊
3장	風[]	11장	李永男	19장	龍業	27장	全日
4장	正熏	12장	天玆世	20장	出生	28장	敬得
5장	李春貞	13장	太准	21장	·	29장	金亿[]
6장	金[]男	14장	法[]	22장	德英	30장	·
7장	崔山海	15장	德伊	23장	信彦	31장	天悅
8장	順德	16장	朴應泉	24장	朴補命	32장	·

28) 고희숙, “韓國佛教 講院 沙彌科 教材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第10輯(1994), 895-897. ; 채상식(2010), 306-307. ; 김은진·송일기,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64輯(2015), 331-332.

한편 난외의 시주자 이외에 권말에는 간기와 함께 공덕회향계송 및 51명의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다. <표 4>의 난외 시주자와 합치면 모두 80명이 간행에 동참하였다. 다음은 권말의 간기 및 간행 참여자를 정리한 것이다.

應俊 校/主上三殿壽萬歲/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大禪師 太能/諸經 供養 大施主 崔繼長/諸經 布施 大施主 申福/引勸 兼 大施主 大僅/
板子 大施主 徐瑞福/施主 朴松山/施主 金山/引勸 鄭論金/化士 崔根/金水平/
持殿 慧淨/別坐 勝梅/克念/書記 僅明/緣化 僅日/三性/僅圭/
施主 金世林/朴福山/朴彥同/朴林/朴得男/趙士男/劉連代/文德/文化/風介/鄭論山/業介/
日介/李洪季/石天代/朴難/文英世/趙億盃/九花/崔龍/李上/李卜/張愁里卜/金金/
吳奉鶴/李克男/金明進/順介/玉晶/太圭/戒失/僅宝/大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四月日 全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위의 기록을 통해 『계초심학인문』은 1635년 4월에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태능과 계학이 주도하고 應俊이 校正의 소임을 맡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계초심학인문』 등 뒤에 살펴볼 4월에 간행된 4종의 불서를 간행하는 시기에 태능은 戒熏, 太浩, 覺性, 熙玉, 應默 등과 함께 송광사의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불사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불사는 동년 5월에 끝이 난다. 따라서 태능은 송광사 불사가 마치고 전 먼저 용장사 쪽으로 이동을 하여 용장사의 불서간행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3.2.2 『高峰和尚禪要』(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持正(宋) 錄; 洪喬祖(宋) 編
泰仁: 龍藏寺, 1635年(仁祖 13)
1冊. 四周單邊, 半郭 18.9×12.7cm, 8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8.7×17.9cm
刊記: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珠山龍藏寺開刊
版心題: 要

『고봉화상선요』는 宋末元初의 고승인 高峰 原妙(1238-1295)의 어록 중에 일부 법문을 그의 시자인 持正과 유발상좌 洪喬祖가 엮은 것으로, 불교의 전통강원 四集科의 교육과목이며 일반적으로 『禪要』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399년(정종 원년)에 덕기사에서 처음 간행이 이루어졌고 이후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34여 종의 판본이 전해진다.²⁹⁾ 용장사판 『선요』는 1590년(선조 23)에 간행된 송광사판 계열의 판본으로 1634년 天冠寺에서 간행된 『선요』를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범어사,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용장사판 『선요』는 전체 53장으로 홍교조의 서문 2장, 朱穎遠의 발문 2장, 본문 4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외 시주자는 총 39명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29) 김영선,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199.

<표 5> 「高峰和尚禪要」 난의 시주자 현황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序 1장	大閑	8장	均正	20장	敬森	31장	正伸
2장	智楫	9장	玄悟	21장	道存	32장	永介
跋 1장	惠難	10장	法贊	22장	應介	33장	春每
2장	得連	11장	元日	23장	應介	34장	應軒
본문 1장	勝彦	12장	性安	24장	金德龍	35장	性敏
2장	聖淪	13장	天裕	25장	戒晝	36장	戒眞
3장	元海	14장	德浩	26장	弘俊	37장	.
4장	道默	16장	勝玉	27장	印和	38장	正印
5장	元應	17장	處日	28장	性悟	39장	.
6장	覺惠	18장	信甘	29장	无心	~	.
7장	彦暉	19장	大雄	30장	風介	49장	.

난의 시주자와 권말에 기록된 간행 동참자 16명을 포함하면 모두 55명이 「고봉화상선요」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권말에 기록된 간기와 참여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主上三殿壽萬歲/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應俊 校/
大禪師 太能/諸經 供養 大施主 崔繼長/諸經 布施 大施主 申福/引勸 兼 大施主 大僅/思信/
大施主 印軒/住持 敏雄/化土 崔根/金水平/
別坐 勝梅/克念/僅日/三性/僅圭/大化土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四月日 全哭道 泰仁縣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위 기록을 볼 때, 앞서 살펴보았던 「계초심학인문」과 동일하게 校正은 應俊이 담당하였고, 태능과 계학에 의해 「선요」의 판각이 주도되어 1635년 4월에 간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선요」에 별좌로 등장하는 승매·극념·의일·삼성·의규 가운데 의일·삼성·의규는 「계초심학인문」의 개관에서 緣化의 소임을 담당하였다. 이는 「선요」의 판각을 먼저 시작하고 「계초심학인문」의 판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관불사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사찰의 중무업무를 보는 緣化소임을 둘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3.2.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般刺密帝(唐) 譯 ; 戒環(宋) 註解
泰仁 : 龍藏寺, 1635년(仁祖 13)
10卷5册. 四周單邊, 半郭 25.4×17.3cm, 8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5.7×24.0cm
刊記 :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본 경전은 불교의 전통강원 四教科의 교육과목으로 『首楞嚴經』 또는 『楞嚴經』 등으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 高宗年間부터 판각이 이루어졌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현재 간행기록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76종이 전해진다. 용장사판 『능엄경』은 1401년(태종 1)에 大字本 8행 20자로 간행된 『능엄경』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및 송광사성보박물관에 完帙이 소장되어 있고, 경상대학교(1책; 권9-10), 동국대학교(3책; 권3-4, 권7-8, 권9-10권), 송광사 성보박물관(1책; 권9-10) 등에 영본이 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권10 제41장에 해당(간기부분)하는 목판 1장이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³⁰⁾

한편 본 『능엄경』에도 다른 용장사 간행본과 같이 권1-10까지 각장 앞면 변란 밖 오른쪽 하단에 모두 327명의 시주자(중복 참여자; 2회 30명, 3회 2명)가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楞嚴經」 난의 시주자 현황

장차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1장	李山水	長貴同	石介	文彥	李孫先	漢終	春介	許得龍	春生	仲里介
2장	論河	長貴同	石介	文彥	李金	·	德禮	許得龍	·	古邑德
3장	隻均	金恩貴	朱玆世	金挨世	李金	·	日進	許得龍	朴成春	玆介
4장	勝密	金僅信	朱玆世	金挨世	埋衍	金哲	庚玄	許得龍	朴成春	孝禮
5장	草明	阿亡介	信敏	申千吉	德浩	李守	春玉	許得龍	肉河	林卜世
6장	思性	長閑金	界敏	安德祥	河叱噫	李守	朴仁宝	·	肉河	金僊巾
7장	英敏	業眞	金尙金	金斗云	能岩	金大守	任印浩	慶行	金斤卜	吳僊世
8장	自先	業眞	金尙金	金斗云	尙悟	金大守	永春	慶行	尹希千	成梅
9장	僅敬	肉今	郭挨孫	肉非	僅日立	金大男	宋已	慶行	石介	金貴男
10장	智官	李禮孫	郭挨孫	朱閑金	水淨	京德	宋時昌	慶行	石介	德只
11장	哭千卜	女山	근今	山女	敬默	金諗今	宋後乞	慶行	朴金	趙起祥
12장	太和	朱閑金	근今	李禮孫	明玉	肉伊	宋仁乞	申貴業	金毛之里	金得命
13장	明上	金占山	·	崔應之	斗岩	石木	朴烏同	申貴業	白金	朴千梅
14장	道演	金莫生	朴眞雄	崔應之	信正	石木	朴分山	申貴業	金億永	愛春
15장	敬應	朴挨孫	高良水	金得龍	朴春梅	金肉正	曹乾之	申貴業	金億水	李茂長
16장	信會	母花	高億林	金得龍	朴春梅	石今	林莫金	學眉	延春	李茂長
17장	双卜	眞伊	玉今	仁德	申卜男	朴海水	齡今	學眉	延春	李茂長
18장	鄭從花	千奉	高億金	春介	姜杜鵑	朴海水	張從石	學眉	朴富貴	李茂長
19장	得杯	金恩卜	金大春	春介	李忠元	思信	張從石	學眉	朴富耳	李茂長
20장	金彥風	安德祥	金二男	林尙致	莫德	근玉	林中希	金銀卜	海生	李茂長
21장	金古公	德伊	金二男	林尙致	崔敬立	金毛眞金	得今	金銀卜	·	李大元

30)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3 전라북도·전라남도 1 (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28-29.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장차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22장	朴應方	鄭光同	春代	金泉只	卜非	朴芑山	順德	金大男	李石	李大元
23장	女安	朴仁同	能介	金泉只	妙各	朴彥弘	朴官伊	金毛眞金	崔大邑	鄭毛里金
24장	每還	愛代	文介	梁守仁	孫氏女王	金[]乃	徐肉希	朴芑山	崔大邑	滄介
25장	每還	愛代	·	金芑金	孫氏女王	懿德	·	朴彥弘	卓氏丁介	玉春
26장	宋愛圭	金貴卜	李大鳳	崔男	祖明	朴德已	德伊	朴德已	卓氏丁介	玉春
27장	宋愛圭	金貴卜	僅敬	朴宋禮	德伊	金於入金	學祖	石今	崔大元	玉春
28장	梁白云	梁各	厚介	朴宋禮	金億守	金罷卜	學祖	金於市金	崔大元	玉春
29장	李得立	梁各	閑德	魯彥補	尙連	金罷卜	昆介	順卜	黃彥香	玉春
30장	李得立	直女	鄭望音同	莫今	許文水	金孫石	昆介	金罷卜	周代奉	玉春
31장	姜烏山	安善孫	鄭望音同	崔德龍	皮禿卜	金云世	玄卜世	金罷卜	今春	鄭韓同
32장	姜烏山	崔應貞	方難	孫順希	眞伊	納之	玄卜世	金孫石	李龍占	順今
33장	貴河	慈守	論月	孫難金	漠終	李日世	金彥尙	金云世	姜大云	鄭漢進
34장	貴河	万云	論德	孫難金	漠終	主俠	·	納之	金德景	里非
35장	三益	應海	趙必	金介云	漠終	趙海千	災敏伊	李一世	金定龍	鄭訥叱孫
36장	學禪	守官	宋正順	金介云		金命币	災敏伊	趙海天	德介	金白云
37장	金已任	應哲	宋正順	芑今		朴一同	道極	主俠	金君男	金白云
38장	法坦	法灵	宋根宝	金斗生		金彥玉	道極	朴男	鄭海龍	·
39장	梁永甫	加悟成	宋根宝	張芑同		·	·	宋守男	金花	終分
40장	宋芑世	允月	芑屎	金德水		金山伊	景代	禿終	陳金同	朴德水
41장	朱芑世	金命	德个	金德水		崔大云	姜玉景	金弘立	李石卜	朴德水
42장	朴神乃	金命伊	李弄倉	僅官		趙石卜	姜玉景	朱万已	朴納孫	
43장	末非	春介	叔代	僅贊		崔貴世	男德	朱万已	河龍介	
44장	文花	春介	叔代	祖先		·	男德	梅還	李山元	
45장	鄭莫難	李得立	李閑男	·		梁永夫		金千水	崔禮達	
46장	鄭莫難	李得立	李閑男	申貴業		双印		智行	李德介	
47장		莫介	宣得僅	申貴業		[][]		李山水	林玉生	
48장		金五十同	論春	申貴業				李山水	韓庚辰	
49장		金五十同	肉春	申貴業				郭今山	李訓伊	
50장		良良	·	申貴業				郭今山	張難位	
51장		姜桂公		金難金				郭今山	張德連	
52장		姜桂公		灵宝				郭今山		
53장				元悟				徐還春		
54장				元悟				朴白連		
55장				朴已龍				業眞		
56장								莫介		
57장								金命伊		
58장								金命伊		
59장								梁各		
60장								·		
참여 인원	40명	43명	36명	37명	30명	37명	33명	36명	41명	28명

중복 시주자들은 크게 같은 권차 내에서 연속으로 등장하는 유형과 각기 다른 권차에 중복 등장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권차 내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경우는 2회가 가장 많으며 學眉(4회), 郭今山(4회), 申貴業(5회), 許得龍(5회), 慶行(5회), 李茂長(6회), 玉春(6회) 등은 다수의 장에서 연속으로 확인된다. 다른 권차에 중복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특별한 규칙은 없어 보이지만 6권에서 확인된 시주자가 8권에 집중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본 『능엄경』의 간기는 9권 52장 뒷면 및 10권 4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행 참여자는 각각 90명과 125명이 기입되어 있다. <표 6>의 변란 밖 시주자와 9권 및 10권 간기에 중복 등장하는 시주자는 17명으로 모두 525명이 『능엄경』을 간행하는데 참여하였다. 4월에 간행된 판본 가운데 유일하게 ‘應俊’이 아닌 ‘尙規’가 校正하였다.

<9권 간기>

敬閑/知崑/難雲/密川/惠彦/崔秩男/今信/道心/珠万/入難/應和/趙允石/劉水/玄浩/
春口/金德水/李已/金於仁/崔彦倍/春代/高忠乞/主介/老良伊/朴貴山/劉洪心/浮甘/行淮/
承浩/李代/法尙/彦珠/弘均/上岑/吳士明/法律/太心/介德/高一石/德伊/李衞孫/崔守孫/
思印/크玉/姜夢丁/宝彦倍/金金/水成介/金一生/若雲/金鎰□/朴二男/金大元/成非/寺轉/
李芑山/金与天/徐壽昌/裒德山/玉代/李進/丁邑介/沈玉乃/李香 金彦嫩/趙□金/李難卜/
李鶴壽/宋壽南/衞修/金弘立/金億壽/道成/河慙卜/□每/金西峯/鄭知/玆德/戒德/□德/
風眞/徐日一/梁得立/崔走番/金德芝里/李今山/□花伊/李於之/奉春/奉手/良介/

<10권 간기 앞면>

主上三殿下壽萬歲/
烹板釜子 大施主 鄭必世/校正 尙規/諸經 供養大施主 崔繼長兩主/諸經 布施大施主 申福兩主/
引勸 兼 大施主 大僅比丘/住持 兼 大施主 敏雄比丘/引勸 兼 大施主 金水平兩主/末讐 大施主
玉林比丘/
板子 大施主 金應招兩主/板子 大施主 法浩/布施 大施主 裒彦卜兩主/
大施主 宋神兩主/趙希連兩主/金大吉兩主/金延壽兩主/崔衍伏爲 崔宝兩主 靈可/印軒比丘/慧淨
比丘/
施主 阿□黃兩主/文尹宅 兩主/應生/考介/汗代/大淑/
引勸秩 勝一/玄浩/弘珠/林仁水/崔根/金善文/文守元/李應每/
松烟 大施主 性悟/禪淨/

<10권 간기 뒷면>

大禪師 太能/戒熏/太浩/海眼/覺性/禪師 法雲靈駕/
施主 妙熙/双印/尙岩/戒行/尙規/性玄/學澄/戒林/敬訓/處演/
施主 金今堂/金德立/金世/金春生/金世還/金風山/李億每/李春卜/李永男/李春万/李彦卜/
李永同/崔補立/李神/尹包石/申上伊/申德連/申應世/申莫金/申春生/柵希赤/朴甘卜/朴南山/
高成男/崔永生/崔德男/崔得男/宋德訓/宋四年/吳知/玉知/洞春/李白陽/鄭得老/姜臣同金/
黃石金/陸明云/柴德立/朴春鶴/李遵/劉介金/尹承男/尹得/恩介/今花/莫介/三介/業德/
春伊/今代/今春/介德/末非/卜禮/目連/玉花/必今/補德/
蓮化秩 剋悟/惠雨/三性/僅圭/法信/生伊/朴衞同/朴漢孫/法行/法天/法連/會信/
書記 義明/持殿 慧淨/別座 勝梅/板化主 性宗/大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四月日 全哭道 泰仁縣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3.2.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泰仁 : 龍藏寺, 1635년(仁祖 13)
 1冊. 四周單邊, 半郭 26.5×20.0cm, 7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刊記 : 崇禎八年乙亥(1635)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함께 水陸齋와 관련된 대표적인 경전으로 흔히 「結手文」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현재까지 40여 종 이상의 판본이 전해지며, 대부분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와 함께 간행되는 경향을³¹⁾ 보이는데 용장사에서 두 경전을 모두 개관하였다. 용장사판 「결수문」은 1533년(중종 28)에 간행된 文殊寺板 계열의 판본인 大興寺板(1634)을 판하본으로 사용하여 飜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및 송광사 정보박물관 그리고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본 「결수문」은 전체 53장으로 7행 17자로 된 41장의 본문과 9행 20자로 된 12장의 <天地冥陽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가 첨부되어 있다. 난외 시주자는 모두 37명(중복참여자; 4회 1명, 2회 1명)이며, 관심의 어미에 각수로 추정되는 略名이 11종이 확인되었다. 다음 <표 7>은 난외 시주자와 각수 추정 약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난외 시주자 및 각수 추정 약명

장차	시주자	각수추정약명	장차	시주자	각수추정약명	장차	시주자	각수추정약명
1장	李埴[]	玉(上)	19장	靈云		37장	·	
2장	幸思[]	玉(上)	20장	·		38장	金[]口	
3장	三日	林(下)	21장	印修		39장	春代	
4장	懶唯		22장	크午		40장	天芑世	
5장	懶唯	成(下)	23장	性英		41장	·	
6장	天下	成(下)	24장	應默		42장	道衍	玉(上)
7장	姜得男	元(上)	25장	德伊		43장	·	玉(上)
8장	天勝	元(上)	26장	敬元	계(上), 明(下)	44장	月[]	
9장	·	九(下)	27장	尹[][]		45장	·	
10장	·	九(下)	28장	·	卞(下)	46장	難學	
11장	夏介		29장	李莽氏	니(上)	47장	僅達	
12장	信宗		30장	[]山	니(上)	48장	·	
13장	海莽每	해(上)	31장	金鳳[]	不(下)	49장	覺能	
14장	熙孟		32장	成挂祥	不(下)	50장	李僅水	林(下)
15장	喬立	유(下)	33장	女口		51장	李僅水	
16장	喬春		34장	宗花		52장	李僅水	
17장	·		35장	·		53장	李僅水	
18장	僅密		36장	·				

31)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361-363.

한편 용장사에서 개관된 14종의 불서 가운데 「결수문」과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간기에만 각각 12명과 9명의 刻手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결수문」에 기록된 각수는 다음과 같다.

- ① 印和 ② 道慈 ③ 林之先 ④ 性玄 ⑤ 成云 ⑥ 法海
- ⑦ 金光立 ⑧ 宝元 ⑨ 玄淨 ⑩ 學淳 ⑪ 杜一 ⑫ 修遠

위의 각수명으로 볼 때, 「결수문」의 제 3장 하어미의 ‘林’은 ③ 임지선, 제 5장 하어미의 ‘成’은 ⑤ 成云, 제 7장 상어미의 ‘元’은 ⑧ 宝元, 제 13장 상어미의 ‘해’는 ⑥ 法海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版心の 어미에서 확인되는 각수 추정 약명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결수문」의 간기면에 기록된 내용이다.

王妃殿下壽齊年/主上殿下壽萬歲/世子邸下壽千秋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校 應俊/大禪師 太能/
 禪師 法雲/智修/坦衍/海令/印宝/知全/惠日/海信/學眉/弘均/法淳/灵蹟/知通/哲悟/懶唯/清云/
 大施主 河延水 兩主/供養 大施主 崔繼長 兩主/布施 大施主 申補 兩主/引勸 兼 大施主 大僅/
 住持 兼 大施主 敏雄/板子 大施主 法浩/末醬 大施主 玉林/末醬 大施主 思信/大施主 李僅水/
 引勸 勝一/太敬/愛介/金代上/
 三綱 懶應/持殿 慧淨/化主 崔根/金水平/金善文/性宗/別坐 勝梅/克念/書記 義明/治匠 金命水/
 鍊板 吳守眞/法信/尙連
 緣化 僅日/僅圭/三性/法天/法允/會信/法連/惠祐/法行/應生/生伊/
 刻子 印和/道慈/林之先/性玄/成云/法海/金光立/宝元/玄淨/學淳/杜一/修還/
 大化士 戒學/崇禎八年(1635) 乙亥四月日 全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난외 시주자와 간기면의 중복 등장하는 시주자는 懶唯, 李僅水 두 명이며 모두 103명이 용장사관 「결수문」의 간행에 동참하였다. 앞서 자수스님의 <운주산용장사사적기>에서 용장사의 중창불사를 주도한 인물로 언급되었던 장로 ‘知全’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찰의 승려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소임인 三綱과 지금의 중무원으로 볼 수 있는 緣化秩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결수문」의 간행작업을 전후로 용장사에 상주하는 간행동참자 및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木板本. 泰仁 雲住山 : 龍藏寺, 1635年(仁祖 13)
 1冊. 插圖. 四周單邊, 半郭 26.2×20.7cm, 有界, 7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7.1×25.8cm
 刊記 : 崇禎八年(1635)乙亥四月日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版心題 : 中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앞서 살펴본 「결수문」과 함께 水陸齋를 設行하기 위해 편찬된 儀式集으로 흔히 「中禮文」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342년 고려의 승려 죽암에 의해 처음 편찬되었으며,

현존하는 판본은 34여 종이 전해지고 있다. 판본의 계통은 1469년 왕실의 발원으로 간행된 7행 17자의 왕실본 계통과 8행 14자의 無量寺本 계통³²⁾으로 대별된다. 용장사에서 간행된 『중례문』은 왕실본을 번각한 계통의 대흥사판(1634년)을 판하본으로 사용하여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중례문』의 난외 시주자는 모두 45명(중복참여자; 2회 14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난외 시주자 현황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장	朴德仁	23장	崔桂龍	45장	法軒
2장	朴德仁	24장	李桂龍	46장	·
3장	元金	25장	允熙	47장	玉玄
4장	金氏	26장	道邦	48장	玉玄
5장	金氏	27장	安應生	49장	云一
6장	朴珠	28장	道黑	50장	云一
7장	朴珠	29장	道黑	51장	戒訓
8장	崔銀卜	30장	法崇	52장	玉明
9장	長貴男	31장	信元	53장	玉明
10장	徐出生	32장	長介	54장	孫卜
11장	本介	33장	鄭長命	55장	銀卜
12장	本介	34장	鄭長命	56장	法信
13장	海春	35장	元海	57장	法信
14장	海春	36장	元海	58장	靈願
15장	白余還	37장	唯則	59장	靈願
16장	·	38장	印俊	60장	趙玄
17장	金連卜	39장	李命元	61장	梁厚朴
18장	牟五	40장	三寒	62장	·
19장	愛春	41장	信學	63장	五十二
20장	申金	42장	思玉	64장	時仁
21장	李衍還	43장	·	65장	·
22장	李衍還	44장	·		

간행 기록은 65장 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 63명이 기입되어 있다. 선사질에 등장하는 ‘法淳’이 食鹽 大施主로 2번 등장하며, 난외 시주자에 등장하는 ‘法信’이 간기에 鍊板을 담당하고 있다. 난외 시주자를 포함하여 전체 108명이 용장사판 『중례문』의 간행에 동참하였고, 간기에 기록된 참여 인물들은 앞서 살펴본 『결수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禪師秩·緣化秩은 『결수문』과 일치하고 있으며 각수는 『결수문』과 비교하면 學淳·杜一·修還 3명이 빠진 9명이 기록되어 있다. 간기면의

32)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板本考,” 『書誌學報』 第37號(2011), 30-33.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主上三殿壽萬歲/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校 應俊/大禪師 太能/
禪師 法雲/智修/坦衍/海令/印宝/知全/惠日/海信/學眉/弘均/法淳/灵贖/知通/哲悟/懶唯/清云/
大施主 宏紳/諸經 供養 大施主 崔繼長 兩主/諸經 布施 大施主 申補 兩主/引勸 兼 大施主 大僅/
住持 兼 大施主 敏雄/末醬 大施主 玉林/食鹽 大施主 法淳/大施主 金松 兩主/施主 林守珠/
持殿 慧淨/三綱 可奇/引勸 勝一/弘珠/化士 崔根/金水平/金善文/金得龍/李應每/
別坐 勝梅/克念/書記 義明/治匠 金命水/鍊板 吳守眞/法信/尙連/
緣化 僅日/僅圭/三性/法天/法允/會信/法連/惠祐/法行/應生/生伊/
刻子 印和/道慈/林之先/性玄/成云/法海/金光立/宝元/玄淨/大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四月日 全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3.2.6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鳩摩羅什(秦)漢譯; 雙林 傅大士(梁)贊; 六祖大鑑 [惠能(唐)]禪師 口訣; 圭峯 [宗]密
(唐)禪師 纂要; 冶父 川[老](明)禪師 頌; 豫章 [宗]鏡(宋)禪師 提綱; 涵虛堂 得通 說誼
泰仁: 龍藏寺, 仁祖 13(1635)
2卷2册(全). 四周單邊, 半郭 25.2×18.9cm, 有界, 9行 大字14字·中字19字, 註雙行, 上下內向有紋
魚尾; 35.1×24.3cm
刊記: 崇禎八年(1635)乙亥八月日 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刊
版心題: 金剛經
表題: 金剛經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 有一物於此…永樂乙未(1415)六月日涵虛堂衲守伊/盥手焚香謹序
曹溪六祖禪師序: 夫金剛經者…此經如來號爲金剛般若波羅蜜也
豫章沙門宗鏡提頌綱要序: 觀夫空如來藏…見鞭追風千里矣

함허당 득통의 「金剛經五家解說誼」는 1457년(세조 3) 운흥사판을 위시하여 16~17세기에 걸쳐 두루 간행되었으며 10여 종 이상의 판본이 전해진다. 본 용장사판은 1632년(인조 12)에 간행된 龍藏寺板을 판하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내용은 「금강경」에 대해 傅大士·慧能·宗密·冶父·宗鏡 등의 주석에 대하여 함허당 득통의 해석을 편집한 것으로,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과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완질이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용장사본의 上卷(136장)에는 각 장 앞·뒷면의 난외 시주자로 모두 173명(중복참여자; 2회 23명, 3회 5명)이 참여하였고, 下卷(110장)에는 1장 앞면 오른쪽하단에 ‘趙享靈駕’, 25장 뒷면 왼쪽하단에 ‘自德靈駕’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하권은 두 사람의 영가가 시주공덕으로 인해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며 하권의 전체 시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9>는 용장사본 「금강경」 상권 난외에 기록된 시주자명을 정리한 것이다.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표 9> 「金剛般若波羅蜜經」 상권 난의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1장	醒菴	·	47장	許春	玄玉	93장	任仁浩, 愛云	·
2장	高論山	·	48장	今分	·	94장	李淡	夢介
3장	梁月同	·	49장	朱貞立	全天主	95장	李白從	李加之
4장	命今	·	50장	梁漢世	思良介	96장	朴戒[]	分今
5장	吳男伊	吳男伊	51장	安奴良金	朴彥尙	97장	徐京尙	玉代
6장	吳祝生	吳祝生	52장	金德男	丁今	98장	万今	姜金
7장	吳成卜	吳成卜	53장	德禮	·	99장	僅軒	·
8장	已從介	已從介	54장	·	禮貞	100장	·	今補
9장	安心伊	安戒男	55장	·	三今宋秋同	101장	·	曾一凡山
10장	安大永	鄭愛春	56장	今伊	姜天西非	102장	仁弘	·
11장	成春万	成春万	57장	吳迎希	玉伐	103장	·	·
12장	銀花伊	銀花伊	58장	金莫同	崔懿卜	104장	·	·
13장	成守兼	·	59장	三生伊	孫永得	105장	高成男	·
14장	水介海明	德禮	60장	仁春	·	106장	·	祖戒
15장	彦今	金午音同	61장	金直男	今春	107장	·	·
16장	滄介	仁春	62장	注叱介	金生同	108장	曹末山	·
17장	三今	李勇世	63장	李莫世	·	109장	金希卜	·
18장	宋秋同	禮貞	64장	金誥金	沙介	110장	朴世	·
19장	風月	訪滋罪	65장	鄭仁忠李亂金	·	111장	·	·
20장	金莫同	·	66장	鄭石烏德	·	112장	·	·
21장	金臥里	岩回	67장	朴日男	金碧	113장	必今伊	·
22장	金応奉	劉卜水	68장	朴出男	奴芑里	114장	·	·
23장	印	·	69장	·	[]信	115장	·	·
24장	法行	外卜	70장	·	論德	116장	朴命守	·
25장	朴千訂	曹菴奉	71장	金大ㄱ伊	吳惡信	117장	李水同	·
26장	金誥金	命介	72장	白德男	從春	118장	·	·
27장	愛介	牛ㄴ音介	73장	二月	春伊	119장	·	·
28장	尹希天	忠今	74장	永日伊	朴芑金	120장	·	金論正
29장	全大男	·	75장	·	順卜	121장	裴洪立	吳德卜
30장	·	金世孫	76장	德禮	·	122장	禮卜	世山伊, 金存年
31장	尖妃卽	貴日	77장	成春万	仁世	123장	鄭同知	李木
32장	朴言尙	金天主	78장	鄭德男	德准	124장	林卜只	高論山
33장	思郎介	分今	79장	宋順	·	125장	徐德男	金漢介
34장	徐京上	命分	80장	全伊	·	126장	亂春	朴春
35장	鄭應吉	鄭希[]	81장	安戒男	菽苒	127장	金旺男鶴代	·
36장	·	介春靈駕	82장	吳成卜	它從介	128장	·	安下生 金閑斤
37장	·	玄玉	83장	吳男	元哲	129장	長貴仁春郎	·
38장	·	姜梁立	84장	金德水	德元	130장	命介吳德卜	·
39장	·	·	85장	令介	·	131장	·	·
40장	滄介	二月	86장	命今	·	132장	金命水	·
41장	·	白德男	87장	趙漢龍	春郎	133장	弘玲智守	性敏
42장	吳惡信	烏德	88장	鄭應男	·	134장	·	·
43장	李目	徐德男	89장	滄介	芑德	135장	林卜	趙勿勿金
44장	丙今	鄭石伊	90장	·	亡從介	136장	·	·
45장	李亂金	鄭仁世	91장	金鶴同	·	하권 1장	趙享靈駕	·
46장	李孔	姜漢眞	92장	金芑文	車男	하권 25장	·	自德靈駕

한편 용장사판 『금강경』의 간기는 상권 제 136장 앞·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총 65명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校 尙圭/金剛經 大施主 李春男 兩主/板子 大施主 法胡比丘/供養 大施主 朴眞玄兩主/
布施 大施主 宝俊比丘/布施 大施主 金石木兩主/布施 大施主 李愛當兩主/布施 大施主 彦德兩主/
板 大施主 徐世卜兩主/布施 大施主 必代兩主/布施 大施主 遺光比丘/布施 大施主 金金兩主/
食鹽 大施主 秋貴卜兩主/末醬施主 大僅比丘/板施主 金應招兩主/供養施主 朴卜男兩主/
供養保体 成應世兩主/大德 太能/大德 戒薰/大德 太浩/大德 覺性/禪德 弘珠/禪德 玄浩/
禪德 法云/禪和秩 智水/坦衍/云[祖]/海英/智通/智全/學眉/弘均/云[祖]/懶維/海英/弘均/
印宝/勝一/天惻/令灑/道性/法淳/惠日/省明/懶維/哲悟/道默/道剋/和尚 敏雄/三宝 道默/持殿 尙
隣/施主 宋因兩主/愁里金兩主/朴世兩主/孫石男/李應每兩主/金德天兩主/姜平守/春介/
緣化秩内外次知別坐 法行/書記 懷信/法允/應生/生伊/幹善大化主 性宗比丘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 全羅道 泰仁縣 雲住山 龍藏寺 開刊 /

8월에 개관된 용장사판 『금강경』은 14종의 판본 가운데 유일하게 계학이 아닌 성종비구에 의해 주도된 판본이며, 校勘을 맡은 ‘尙圭’는 앞서 4월에 간행된 『능엄경』을 교정한 ‘尙規’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간기에서 ‘云[祖]’, ‘懶維’, ‘弘均’, ‘海英’, ‘道默’ 등 5명은 2번씩 등장하고 도목은 禪和秩과 소임 ‘三宝’에 따로 기입하고 있으나 운[조]·나유·홍균·해영은 특이사항 없이 같은 단에 2번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각수의 실수 혹은 ‘緣化秩’을 기입하고 이름을 새기고자 위치를 옮겨 다시 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난외 시주자에 기록된 ‘法行’과 ‘朴世’가 간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간행에는 모두 233명이 동참하였다. 한편 <운주산용장사사적기>에 등장하였던 ‘지전장로’가 간기에서 확인되며, 1628년(인조 6) 용복사판 『節要』의 각수로 활동했던 ‘法浩’가 板子大施主를 맡았다. 또한 ‘緣化秩内外次知別坐’ 소임이 등장한다. 이 소임은 판각불사를 위해 용장사의 안과 밖에서 활동을 하는 연화질의 조율 및 필요사항을 조달해주는 역할로 판단되며 『금강경』 외에 다른 용장사 간행본에서는 이 소임이 등장하지 않는다.

3.2.7 『大慧普覺禪師書』 (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宗臯(宋) 著; 慧然(宋) 錄; 黃文昌(宋) 重編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1635(仁祖 13)
1冊. 四周單邊, 半郭 19.0×14.3cm, 10行17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9.3×19.0cm
刊記: 崇禎八年乙亥(1635)八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刊
表題: 大慧書藏

『大慧普覺禪師書』는 불교의 전통강원 사집과의 교육과목인데, 일반적으로 『書狀』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1387년(高麗 禎王 13)에 목판으로 처음 간행된 후 다른 사집과목의 간행본들처럼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현재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0종이며³³⁾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간행이 이루어졌다.

용장사판 『서장』은 1531년 간행된 10행 17자의 松廣寺板 계통으로³⁴⁾ 본문 113장, 文昌과 李穡의 발문 2장, 刊記 1장, 慧謙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판본계통으로 용장사판보다 앞선 시기에 간행된 송광사판(1608)과 天冠寺板(1632)이 있는데, 이 두 판본에는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의 부분이 빠져있다. 다만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은 1568년에 간행된 천관사판에 합철되어 간행되었는데, 용장사판 『서장』이 천관사판(1568) 『서장』을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서장』의 난외에 기록된 시주자³⁵⁾는 모두 153명(중복참여자; 金氏 8회, 長貴仁 5회, 朴德仁 4회, 3회 1명, 2회 23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大慧普覺禪師書」 난외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	·	31	李進/朴朱	61	芑屎/李彥還	91	玉玉/金氏
2	仁今	32	李出/女愛	62	肉伊/崔桂龍	92	黃麥丁/金氏
3	天淮	33	李得仁/경	63	召吏/崔桂龍	93	春日/丁氏
4	尙彦	34	柳氏/姜得卜	64	夢成/宋毅	94	金德水/丁氏
5	洪得立	35	金億壽/姜得卜	65	李成叔	95	李已
6	[]愛[]	36	金億壽/安旺女	66	介進/朴德仁	96	崔彦倍/金氏
7	金仁補	37	九代/空花	67	食德/朴德仁	97	春代/安士元
8	金致敬	38	九代/金世	68	文宝成/張云	98	高忠乞/鄭氏
9	柵文立	39	朴德龍	69	豆土明/柳[]世	99	劉命伊
10	成德男	40	順介/張守男	70	的伊/金厚乃	100	劉弘申
11	李夢良	41	信浩/徐出生	71	金勝水	101	勝浩/崔海令
12	李獻道	42	三卍/孫石男	72	·	102	道心/沈興世
13	李獻道	43	熙運/金景立	73	夏今/朴敬邑	103	鄭卜只
14	李芻之	44	元哲/張貴仁	74	徐鳳/申應守	104	경/天淮
15	金奉世	45	海信/張貴仁	75	芻世/申應田	105	金君丁
16	金代尙	46	金氏/張貴仁	76	從伊/崔喬卜	106	車上佐
17	金代尙	47	金氏/張貴仁	77	丁邑介/崔喬卜	107	金遐乙同/走今
18	喬今	48	鄭氏/張貴仁	78	若雲/崔樂金	108	劉壽/金亡乃
19	張甘孫	49	尹氏/本介	79	金一生/孫五世	109	金春丁
20	張甘孫	50	李氏/本介	80	守性介/朴必生	110	金春丁
21	金大春	51	楊氏/海春	81	金之/申敬男	111	李彥上
22	金大春	52	金氏/海春	82	宝彦倍/申敬男	112	鄭德明
23	愛春/朴男	53	丁氏/金德生	83	李德世/李難卜	113	朴禮山
24	惠行/朴男	54	李德/金譯浩	84	尙叩	114	郭銀石
25	尙熙/朴德仁	55	李成叔/白如還	85	喪惡山/趙日立	115	自穎/金玉世
26	尙熙/朴德仁	56	宋發/金連補	86	法尙/金德生	116	<刊記>
27	良良孫/元金	57	安氏/金毛老	87	金大元	117	朴文山
28	玉代/金氏	58	楊氏/愛春	88	喪春卜/今介	118	[]還/曹愛同
29	奉春/金氏	59	尹氏/申金	89	德伊/今介	119	性敏/僅尙
30	奉守	60	宋氏/李彥還	90	思印/文順卜	120	·

33)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書誌學報』 第35號(2010), 200-201.

34)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第5·6合輯(1990), 171.

35) 오른쪽 변란 하단에 2명이 함께 기입된 부분이 있다.

용장사판 『서장』은 8월에 개관된 것으로 간기는 제 116장의 앞, 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56명의 동참자가 기록되어 있다. 난외 시주자와 중복되는 시주자는 없으며 전체 209명이 간행불사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용장사 간행본과의 차이점으로 용장사 개관불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태능과 교정 소임자 응준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인권질의 참여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서장』의 권말 간기와 간행관련 참여자를 정리한 것이다.

主上三殿下壽萬歲/

供養 大施主 崔繼長兩主/布施 大施主 申福兩主/大施主 裴彥福兩主/大施主 大僅/大施主 敏雄/

大施主 思信/大施主 印軒/大施主 玉林/大施主 法淳/大施主 李太卜/

成德/金英世/長德/正之/李丕世/南丕金/鄭山水/鄭奉/鄭業祿/彥德/

引勸 勝一/弘珠/玄浩/戒彥/崔根/金水平/金善文/金得龍/卜德/白之/弘戒/李卷卜/

宋震生/處日/法惠/性熏/知俊/三應/丁化士 李應每/板化士 性宗/

緣化 法允/法天/僅日/會信/法連/惠祐/法行/應生/生伊/朴漢孫/朴齋同/禮終/

別坐 勝梅/極念/書記 僅明/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 全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刊/

3.2.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知訥(高麗) 撰

泰仁: 龍藏寺, 1635年(仁祖 13)

1冊. 四周單邊, 半郭 18.5×13.8cm, 9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31.0×19.3cm

刊記: 崇禎八年(1635)乙丑八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版心題: 私記

表題: 「節要」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는 전통과목 사집과의 교육과목으로 규봉 종말의 『法集別行錄』을 요약하고 보조국사 지눌의 견해를 수록한 것이다. 靈光 佛甲寺의 복장 전적에서 발견된 『절요』 4종 가운데 高麗本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간행본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간행본으로는 1486년(성종 17)에 圭峯庵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이르다. 현존하는 판본은 모두 27종이며 다른 사집과 불서와 마찬가지로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³⁶⁾

용장사판 『절요』의 저본은 9행 20자 계통 가운데 1604년(선조 37)에 간행된 능인암판을 사용하여 변각한 것으로 보인다. 용장사판 『절요』의 난외 시주자는 모두 60명(중복참여자; 2회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36) 김동연, “朝鮮本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板本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33-34.

<표 11>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난의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장	·	16장	李春男	31장	德只	46장	鄭業同	61장	文九一
2장	禪日立	17장	玄哲	32장	裴延同	47장	朴文希	62장	方英世
3장	禪日立	18장	·	33장	豊伊	48장	黃德同	63장	金忠立
4장	金芑文	19장	春德	34장	成凡伊	49장	金必水	64장	李立孫
5장	金芑文	20장	春德	35장	成凡伊	50장	論伊	65장	金世云
6장	朴春補	21장	趙于堂	36장	信學	51장	崔太直	66장	李滄同
7장	宋仁男	22장	金光億	37장	省訓	52장	金者印金	67장	李[][]
8장	金命億	23장	·	38장	慈云	53장	金旺世	68장	孫補
9장	金命億	24장	朴名春	39장	金哲水	54장	鄭永山	69장	孫補
10장	阿亡介	25장	生伊	40장	[]梅	55장	李夢敬	70장	今德
11장	金孫	26장	朴成厚	41장	萬月	56장	册春	71장	今德
12장	金山伊	27장	朴成厚	42장	萬月	57장	朴世	72장	今春
13장	莫介	28장	李水春	43장	李世洁	58장	朴忠斤	73장	金旺世
14장	印敬	29장	李圭男	44장	李世洁	59장	天女	74장	李補
15장	李春男	30장	往里今	45장	戒灵	60장	全石只	75장	趙男

간기는 제 75장의 앞·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간행에 참여한 시주자는 모두 56명이지만 ‘勝梅’가 별좌 및 시주질에 2번, ‘今德’이 난의 시주자 및 간기에 중복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절요」의 간행에 모두 113명이 동참하였으며, 다른 판본의 간기와 다르게 서기와 별좌를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소임자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기입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절요」의 권말 간기와 간행관련 참여자를 정리한 것이다.

王妣殿下壽齋年/主上殿下壽萬歲/世子邸下壽千秋/
 書記 僅明/別坐 勝梅/
 施主秩 卓性/勝梅/今德/春生/敬訓/春斤/勝贊/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大禪 太能/校 應俊/持展 慧淨/供養 大施主 崔繼長兩主/布施 大施主 申福兩主/
 引勸 兼 大施主 大僅比丘/大施主 金彥敬兩主/大施主 宋厚男兩主/
 金中立/知全/明贊/法淳/慧日/法浩/海英/雙淳/懶維/彥今/慧印/熙玉/戒崇/性悟/
 慶伊/信海/玄益/信洁/金彥壽/應悟/印淨/信悅/應玄/僅寬/敬日/介古里/三玄/法印/
 戒祐/學暹/僅贊/日畢/灵熙/忠彥/天真/示乃天/玄輝/清雲/化主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 全哭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위 기록을 보면 송광사 개관불사에 참여하였던 ‘熙玉’이 확인되며, 또한 앞서 살펴본 「서장」에 빠져있던 태능과 교정을 담당했던 응준, 그리고 용장사의 불사를 도모했던 지전장로가 기록되어 있다. 반면 주지 민응은 빠져 있으며 연화질 및 인권 소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같은 8월에 간행된 판본임에도 참여자 및 소임에서 차이를 보인다.

3.2.9 「妙法蓮華經」(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木板本. 鳩摩羅什(秦) 奉詔譯 ; 戒環(宋) 解
泰仁 : 龍藏寺, 1635(仁祖 13)
1冊. 插圖(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0×16.1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
32.7×20.3cm
刊記 :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刊
要解序 : 靖康丁未(1127)暮春中瀚日謹序
表題 : 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은 대승불교의 핵심경전으로 흔히 「法華經」이라하며 한국에서의 流通本은 鳩摩羅什이 번역한 7권 28품의 「법화경」이 가장 많이 유통되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간행된 불서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화경」은 크게 成達生(1376-1444)이 직접 판하본을 작성하여 판각한 3종(1405, 1422, 1443)과 初鑄甲寅字本(1450)·乙亥字本(1455)·大字本(1470) 계통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현재 160여 종 이상이 전해지는데, 대부분 조선 초기 간행된 4종의 판본들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들이다. 16~18세기 초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활발하게 번각·간행 되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절반가량의 「법화경」이 간행되었다.³⁷⁾

용장사판 「법화경」은 8행 13자 대자본 계통으로 본문의 판하본은 1633년의 證心寺板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수의 變相圖는 대자본의 변상도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변상도를 판각한 각수는 알 수가 없으며 앞선 시기에 간행된 여타의 대자본 계열 판본들의 변상도와 비교하면 그 판각수준이 다소 미흡하다. 한편 대자본 계열 「법화경」의 경우 1574년 德周寺本을 위시하여 권1만을 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³⁸⁾ 용장사본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은 <변상도> 2장, <弘傳序> 3장, <要解序> 3장, <戒環解> 3장, 법화경 1권 본문 51장으로 되어있다. 난외 시주자는 모두 52명(중복 참여자; 3회 1명, 2회 15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37)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17-29.

38) 정왕근(2012), 136-139.

<표 12> 「妙法蓮華經」 난외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장	毛利德灵可/海今	17장	性哲	33장	金右貞	49장	高年水
2장	·	18장	彦今	34장	李水男	50장	高德麟
3장	彦介	19장	張出注	35장	李德立	51장	玉今
4장	彦介	20장	今弘	36장	明玉	52장	高德金
5장	處林	21장	今弘	37장	明玉	53장	朴禿母
6장	李得仁/處林	22장	女貞	38장	命德	54장	分牡灵呵
7장	禪嚴	23장	女分	39장	命禮	55장	墨佻里
8장	劉氏/崔挨山	24장	李芑連	40장	尹者斤	56장	金仁世
9장	印和	25장	尙麟	41장	尹者斤	57장	金仁世
10장	印和	26장	郭守永山	42장	金尙乃/姜芑年	58장	白如還
11장	印和	27장	郭守永山	43장	ㄱ儀	59장	白如還
12장	孫五世/李彦武	28장	業介	44장	敬田	60장	李加八里
13장	墨叱古里/允今	29장	業介	45장	金良水	61장	仁今
14장	六行	30장	郭景男	46장	金良水	62장	春日
15장	方英世/允今	31장	郭景男	47장	李彦武	-	-
16장	姜仁景/彦今	32장	金右貞	48장	今代	-	-

용장사판 「법화경」은 8월에 개관된 불서로 간기는 권말 제 62장에 뒷면에 기입되어 있으며 47명이 기록되어 있고 난외 시주자를 포함하여 모두 99명이 「법화경」의 간행에 동참하였다.

主上三殿下壽萬歲/
 大施主 李太福兩主/大施主 孫氏禮任/大施主 崔繼長兩主/大施主 申卜兩主/大施主 裴彦卜兩主/
 大施主 大僅/右金/大施主 敏雄/信和/大施主 玉林/大施主 思信/大施主 法淳/大施主 法浩/
 大施主 印軒/大施主 河蓮水/大施主 趙熙蓮/大施主 金神知/
 吳成福/盧應旺/趙齋孫/崔彦斤/
 引勸 勝叱/弘珠/玄浩/戒彦/道極/崔根/金水平/金善文/金得龍/丁化士 李應每/板化士 性宗/
 緣化 法允/法天/僅日/會信/法連/惠祐/法軒/應生/生伊/朴漢孫/朴齋全/
 別坐 勝梅/極念/書記 僅明/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 全哭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刊/

3.2.10 「禪源諸詮集都序」 (송광사 정보박물관 소장)

木板本. 宗密(唐) 述
 泰仁 雲住山 : 龍藏寺, 1635年(仁祖 13)
 2卷 1冊. 四周單邊, 半郭 19.3×13.7cm, 9行19字,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 ; 29.3×19.0cm
 刊記 : 崇禎八年乙亥(1635)八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版心題 : 都序
 表題 : 圭峰序錄

『禪源諸詮集都序』는 앞서 살펴본 『선요』·『서장』·『절요』와 함께 전통강원 사집과의 중요 과목으로 흔히 『都序』라 한다. 圭峰 宗密(780-841)의 저술로 한국으로의 유입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중국의 강남지역으로 구법을 다녀온 유학생들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처음 인용되고 있다.³⁹⁾ 현존하는 판본은 모두 26종이며 다른 사집과 불서와 함께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⁴⁰⁾되었다. 주요 판본의 계통은 1493년(성종 24)에 간행된 10행 20자의 花岩寺本 계통과 1579년(선조 12)에 간행한 9행 19자의 神興寺本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용장사본은 9행 19자의 신흥사본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난의 시주자를 보면, 모두 59명(중복참여자; 3회 1명, 2회 12명)이 간행에 시주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禪源諸詮集都序』 난의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장	劉風水	16장	白於屯	31장	莫德	46장	李仁卜	61장	金德龍
2장	劉風水	17장	白於屯	32장	車春已	47장	金波回	62장	金德龍
3장	卜月	18장	介非	33장	崔命得	48장	金破石	63장	丁小寒
4장	卜月	19장	介非	34장	李春水	49장	仇德文	64장	崔奉千
5장	亓非	20장	金亓屎	35장	万介	50장	韓德邁	65장	金得立
6장	亓非	21장	難伐	36장	李太極	51장	玉晶	66장	善代
7장	亓非	22장	高百卜	37장	風波春	52장	鄭淡	67장	李滄同
8장	白彦水	23장	天月	38장	崔安旺	53장	接上介	68장	崔白水
9장	南順乞	24장	洪三龍	39장	덕승	54장	金萬世	69장	李永會
10장	南順乞	25장	切非	40장	洪仁亓	55장	金萬世	70장	水永介
11장	隱介	26장	金明補	41장	風加應伊	56장	金齡世	71장	丁亓屎
12장	隱介	27장	愛介	42장	李亓孫	57장	朴罷朴	72장	仍色德
13장	姜[]天	28장	趙繼元	43장	崔安世	58장	朴罷朴	73장	車白云
14장	冬至	29장	趙繼元	44장	安九一	59장	風月	·	·
15장	冬至	30장	介伋	45장	金克之	60장	風月	·	·

『도서』의 간기는 상권의 권말인 제 40장 뒷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간행 동참자는 모두 63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난의 시주자를 포함하여 총 122명이 간행에 동참하였다.

主上三殿壽萬歲/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大禪師 太能/校 應俊/持展 慧淨/
 大施主 裊彦福兩主/引勸 兼 大施主 大僅/施主 天測/大施主 金莫世兩主/大施主 金大吉兩主/
 李士朝/敬春/今代/汝均/漢德/李泉/湛彦/法寬/玄浩/天演/張延壽/清德/張今世/僅淡/
 僅軒/教元/戒浩/海心/孔衎石/金莫難/尙見/印宝/信和/法湛/春代/德禮/劉介金/李美/

39) 최동원, 『朝鮮時代에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45-50.
 40) 최동원·송일기, 『『禪源諸詮集都序』의 板本 研究』 『書誌學報』 第32號(2008), 105-107.

知修/處安/戒軒/李宮世/僅尙/柳代/可機/德非/吳世必/丕代/軟介/崔丕世/朴百年/
 金億萬/金壽金/宋市招/書記 僅明/別座 勝梅/化士 戒學
 崇禎八年(1635) 乙亥八月日 全哭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開刊/

용장사에서 8월에 간행된 불서는 「금강경반야바라밀경」·「서장」·「묘법연화경」·「절요」·「도서」 등 5종으로 이 가운데 ‘태능’이 참여한 판본이 3종(「절요」·「도서」·「금강경반야바라밀경」), 참여하지 않는 판본이 2종(「서장」과 「묘법연화경」)이다. ‘태능’이 참여하지 않은 2종의 판본에는 다수의 인권질과 함께 용장사 개관 불사의 주도 인물인 ‘계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장사에서 8월에 간행된 불서 가운데 「서장」과 「묘법연화경」 2종의 판본은 계학이 주도하여 개관불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11 「佛說廣本大藏經」(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木板本.

泰仁 雲住山：龍藏寺，1635年(仁祖 13)

1冊. 四周單邊，半郭 23.6×17.3cm，有界，11行14字(無界 13行14字 混入)，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內向1-3葉花紋魚尾 混入)；29.7×21.8cm

版心題：大

表題：佛說廣本大藏[歲]經(墨書)

刊記：崇禎八年乙亥(1635)九月日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板化士戒

「불설광본대세경」은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호법선신인 천룡팔부를 비롯하여 집안을 담당하는 여러 신들에게 경전을 受持讀誦한 공덕으로 수명장수와 재난구호 등을 바라는 기복적 성격이 강하고, 불교와 도교·민간의 신앙이 접목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僞經으로 보고 있다.

용장사판은 「불설광본대세경」을 시작으로 <佛說地心多羅尼經序> 3장·<佛說地心多羅尼經> 26장·<天地八陽神呪經序> 2장·<佛說天地八陽神呪經> 26장과 간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佛說龍王經>·<佛說歡喜龍王經>·<佛說安宅神呪經> 등 16종의 경전이 합각되어 있으며 모두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까지 5종의 「불설광본대세경」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 간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 간행시기가 가장 빠르다.

용장사에서 개관된 다른 불서와 마찬가지로 난외에 시주자들이 책 전반에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간행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광본대세경」 목판 42장은 용장사판 「불설광본대세경」에 기록된 난외 시주자 인명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용장사에서 개관한 목판으로 추정된다. 난외 시주자는 모두 160명(중복참여자; 3회 1명, 2회 2명)이고, 선운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42장의 난외 시주자⁴¹⁾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41) 문화재청(2015), 30-39.

<표 14> 「佛說廣本大歲經」 등 난외 시주자 현황42)

장차	경명	시주자	선운사 소장판 시주자	목판현황	장차	경명	시주자	선운사 소장판 시주자	목판현황
1장	佛說廣本大歲經	朴吉孫/[]	朴吉孫/黃金	有	64장		可機/尹英水	可機/尹英水	有
2장		眞[]	眞元		65장		文允/春介	文允/春介	
3장		李鳳立	李鳳立	有	66장		信岩/李仇卜	信岩/李仇	有
4장		曹德元	曹[]元		67장		海信/雲眞	海信/雲眞	
5장		鄭龍	鄭龍	有	68장		元哲/孔太生	元哲/孔太莊	有
6장		金彦	金彦		69장		燕式/盧得立	.	
7장		朴山希/玉介	玉介	有	70장		盧日男	盧日男	有
8장		金寶湯	<손상>		71장		金者斤/金朴男	.	
9장		李彦武	彦武	有	72장		方李金	.	有
10장		信皓	信皓		73장		金命連	金命連	
11장		長甘孫	長甘孫	有	74장		林英孫	林英孫	有
12장		莫斤	莫斤		75장		崔影	崔影	
13장		文介	文介	有	76장		崔[]卜	崔[]卜	有
14장		李石孫	李石孫		77장		李良	.	
15장		李吳難	李吳難	有	78장		春介	.	有
16장		玄卜世	玄卜世		79장		金丁卜	金丁卜	
17장		尹中只之	尹中只之	有	80장		.	.	有
18장		木眞/万分	木眞/万今		81장	佛說龜王經	.	五介	
19장		金大春/金戒上	金大春/金戒上	有	82장		.	손상	有
20장		金貴生/芑金	金貴生/芑金		83장		姜德卜	.	
21장		長太強	長太強	有	84장		安旺[]	.	有
22장		呂貴日/張戊仁	呂貴日/張戊仁		85장	佛說歡喜龜王經	烏之	烏之	
23장		永花	求花	有	86장		宋德黃	宋德黃	有
24장	佛說地心多羅尼經序	海生	海生		87장	佛說安宅神呪經	崔卜男	崔勇	
25장		金一同	金一同	有	88장		宋令[]	손상	有
26장		金弼孫	金弼孫		89장		宋仲[]	宋仲招	
27장	佛說地心多羅尼經	李春電	李春電	有	90장		鄭哲明	鄭哲明	有
28장		金敬電	金敬電		91장	佛說百熱神呪經	朱大方	.	
29장		銀春/梁戒男	銀春/梁戒男	有	92장		李介	.	有
30장		崔命山/梁大立	崔命山/梁大立		93장		貴一男	黃一男	
31장		吳得山	吳得山	有	94장		朴一金/許井卜	朴一金	有
32장		吳毛一介	吳毛一介		95장		.	.	
33장		難介/金春德	難介/金春德	有	96장		裴山卜	.	有
34장		順月/朴文學	順月/朴文學		97장	佛說金神七熱經	葉介	.	
35장		春花伊	春花伊	有	98장	佛說龍王三昧經	金應難/[]應林	.	有
36장		守金	守金		99장		韓介/訥叱德	.	
37장		[]只	玉只	有	100장	佛說敗目神呪經	洪已男/文思金	.	有
38장		柴連卜	柴連卜		101장		禮仁	.	
39장		金大男/金還生	金大男/金[]生	有	102장		鄭士元	.	有
40장		.	.		103장	佛說度厄經	性眞	.	
41장		崔得春/目只	崔得春/目只	有	104장		.	.	有
42장		伸構介/崔春卜	[]構介/崔春卜		105장		李吉/[]代[]	.	
43장		.	.	有	106장	佛說五姓反支經	金二生/鄭大生	.	有
44장		徐德水/裴弘日	徐德水/裴弘日		107장	佛說堯堯經	德非	.	
45장		春介/李仁	春介/李仁	有	108장	佛說明堂神經	[]今	.	有
46장		春德/鶴代	春德/鶴代		109장		還生	.	
47장		奉介/李敬立	奉介/李敬立	有	110장	佛說救護身命經	宋極	.	有
48장		金挨希/鄭大千	金[]希/鄭大千		111장		宋乙生/金莫同	.	
49장		莫代	.	無	112장		白德/金一男	.	有
50장		李中希/盧式	.		113장		盧彦敬	盧彦敬	
51장		必德/朴秀短	必[]/朴秀短	有	114장		金[]生	손상	有
52장		尹奇金/長小男	尹奇金/長小男		115장		宋中招	宋中招	
53장	天地八陽神呪經序	仇代仁/守/趙德生	손상	有	116장		從今	從今	有
54장		孔憲石/鄭貴生	손상		117장		朴德水	.	
55장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彦今/鄭憲[]	彦今/鄭憲[]	有	118장		金白雲	.	有
56장		宜成/林進軒	道成/林進軒		119장		李德立/銀春	.	
57장		弘均/梁[]卜	.	無	120장		德卜/莫介	.	有
58장		彦珠/玉只	.		121장		寶准/白從今	.	
59장		智修/春[]	.	無	122장	佛說牛馬長生經	天代/今[]	.	有
60장		金支同	.		123장	佛說三災消滅經	.	.	
61장		戒軒/申貴日	戒軒/申貴日	有	124장	佛說重眼神經	.	.	有
62장		成眞/十今	成眞/七今		125장	兒限童子經	.	.	
63장		儀尙/金善同	儀尙/金善同	有					有

42) 진하게 표시된 곳은 판면의 앞뒤 내용이 연속되지 않게 판각된 것이다. 「불설천지팔양신주경」 63장(앞)과 「불설안택신주경」 88장(뒤), 「불설천지팔양신주경」 79장(앞)과 「불설안택신주경」 87장(뒤)이 함께 판각되어 있다.

난의 시주자에 기입하고 있어 망자의 명복을 바라는 목적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위의 두 가지 명확한 동기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동기에 대해 판본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용장사 간행본들은 宗義類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經典類가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의식집류가 간행되었다. 불서의 주된 용도로 구별하면 경전류는 『불설광본대세경』을 제외한 경전이 모두 전통강원의 이력과목들로 학습의 용도가 매우 높은 경전이며, 중의류의 판본들은 『몽산법어약록』을 빼고 5종이 사미·사집과의 교육과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용장사 간행본의 주제별 분류

大分類	小分類	종수	비율	佛書名	용도
經典類	般若部	1	7.15%	金剛般若波羅蜜經	학습
	法華部	1	7.15%	妙法蓮華經	공덕
	密教部	4	28.5%	楞嚴經	학습
佛說廣本大歲經, 佛說地心陀羅尼經, 天地八陽神呪經				기도	
宗義類	禪宗部	6	42.9%	誠初心學人文, 蒙山和尙法語略錄, 高峰和尙禪要, 大慧普覺禪師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禪源諸詮集都序	학습
禮儀類	齋儀式	2	14.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재의식
합계		14종	100%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승려들의 학습을 위한 경전간행이 중심을 이룬 불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한 경전간행은 부휴계와 서산계의 선사들이 지속적인 개관불사를 통해 임란 이후 노력해왔던 활동이다. 용장사 또한 부휴계의 법맥을 이은 벽암 각성과 서산계의 소요 태능, 희옥, 태호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 불사로 이러한 간행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八道都摠攝國一都大禪師, 忠淸都摠攝, 全羅都摠攝 등의 직위를 맡은 대선사들의 참여는 용장사에서 진행되는 불사 및 사찰의 위상을 높였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재의식에 필요한 경전 2종을 간행하여 수록재의 봉행과 수록재 봉행을 위한 서적의 공급을 통해 17세기 여러 내외 요인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장사판 『묘법연화경』은 권1만을 간행하고 있어 공덕용 및 망자 천도 등의 목적으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화경』, 『결수문』, 『중례문』은 당시의 피폐한 민심을 불경간행 및 수록재를 통해 수용하고 불사의 공덕을 많은 기층민들에게 권유할 목적으로 간행된 경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설광본대세경』은 불교·도교·민간신앙의 복합적인 기도문으로 용장사의 간행불사 중 가장 마지막에 간행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위경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간기를 살펴보면 소요 태능과 벽암 각성을 비롯한 대선사들이 다수 간행에 동참하였다. 이는 민간신앙적인 경전의 위상을

상승시켜주고 기도·구복적인 방편을 통해 개관불사 후에 용장사의 중창불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간행한 경전으로 보여 진다.

이상을 정리하면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표면적으로 왕실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와 함께 승려들을 위한 학습 및 경전유포, 망자의 천도, 간행동참자의 소원성취, 대선사들의 참여로 인한 사찰의 위상 증대, 중창불사를 위한 제반적 여건 마련 등의 복합적인 동기로 진행된 개관불사로 볼 수 있다.

4.2 刻手 분석

4.2.1 刻手

각수는 다듬어진 목판에 문자 등을 새기는 기술자들로 개관불사의 핵심을 이룬다. 용장사의 간행본에 등장하는 각수는 전체 12명으로 그 소임의 표기를 ‘刻子’로 기록해 두었다. 용장사에서 간행된 판본 가운데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만 각수가 기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간행본의 간기면에는 각수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 16>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각수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간기면 내 각수질 현황

書名	소임 표기	인원	참여각수 이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刻子	12명	金光立, 道慈, 杜一, 法海, 宝元, 成云, 性玄, 修還, 印和, 林之先, 玄淨, 學淳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9명	金光立, 道慈, 法海, 宝元, 成云, 性玄, 印和, 林之先, 玄淨

4.2.2 刻手 推定 略名

1635년 용장사에 개관한 14종의 간행본에서 권말에 각수질이 기입된 것은 2종이며 그 외 12종에는 각수명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판독이 어려운 『계초심학인문』·『몽산범어약록』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의 판심부 上·下 魚尾부분에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약식문자가 음각 또는 양각으로 판각되어 있다. 이러한 약식문자는 전체 55종이 확인되며 가장 많이 등장한 약명은 ‘玉’과 ‘元’으로 7종의 경전에 각각 36회, 28회 확인된다. 그 외 계·明, 上·一, 크·軒, 玄·印 등과 같이 2자가 어미의 상하에 기입된 것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용장사 간행본 12종에서 확인되는 약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용장사 간행본 각수 추정 약명

번호	略名 文字	선요	금강	능엄경										서장	법화	절요	불광	도서	수륙	천지	등장 횟수	참여 경전	
				1	2	3	4	5	6	7	8	9	10										
1	玉		5				2	4	3	4		3	2		1	2	2	4	4		36	7종	
2	元		3		2	3	2	2	3							4	3	2	2	2	28	7종	
3	니		2						2	2	6	2	3			2		4	2	2	27	5종	
4	林						2	2		1	9	2	2	1				4	2		25	4종	
5	해		4	7	6				1	1	2					1		2	1		25	5종	
6	森		4								6	4			2	4		2			22	5종	
7	云		2						2	1	4					2	2	3			16	5종	
8	下	2	3			2	2		2	2						2		1			16	5종	
9	成				1	2	1	2								1		2	2	2	13	5종	
10	不		1				1		3						1	1		2	2		11	6종	
11	丁						2	1		2	1	3					2				11	2종	
12	申						1	2	3			3						2			11	2종	
13	심											5	2		4						11	2종	
14	九		4				2												2	2	10	4종	
15	유			2		1		2		2					1				1	1	10	4종	
16	口		7																		7	1종	
17	ㄱ		5														2				7	2종	
18	ㅁ						2	2		2	1										7	1종	
19	明											2	4					1			7	2종	
20	가						2	2		2											6	1종	
21	市		6																		6	1종	
22	還									2	2	2									6	1종	
24	由															4	2				6	2종	
25	계明						2		2										1		5	2종	
26	俊						2	2		1											5	1종	
27	玄							2					2	1							5	2종	
28	上								1				1	2						1	5	3종	
29	仁											1	4								5	1종	
30	경		2		1												1				4	4종	
31	淳																3				3	1종	
32	沈						1				2										3	1종	
34	ㄷ		1													2					3	2종	
35	英														2		1				3	2종	
36	風							3													3	1종	
37	古						1	1													2	1종	
39	上一															2					2	1종	
40	太						2														2	1종	
41	行														1	1					2	2종	
42	日						1										1				2	2종	
43	法		2																		2	1종	
45	双															1		1			2	2종	
46	哲		2																		2	1종	
47	禮					2															2	1종	
48	金									1	1										2	1종	
49	敬		1																		1	1종	
50	長		1																		1	1종	
51	ㄷ軒		1																		1	1종	
52	運														1						1	1종	
53	工														1						1	1종	
54	계																1				1	1종	
55	玄印		1																		1	1종	
합계		1종	20종												2종	10종	15종	10종	13종	10종	6종	·	·

4.2.3 추정 인물

<표 17>에서 살펴본 刻手 推定 略名 55종 가운데 해당 약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약명은 22종이다. 각각의 추정인물은 약명이 등장하는 판본의 변란 및 간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한하여 정리하였다. 약명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각수는 총 36명으로 용장사의 개관 불사이후 각수활동이 드러나는 敬玉·双印·太心·六行·法行·哲悟 등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판본의 상하어미에 기입된 약명을 사용한 인물들이 각수 또는 보조각수를 지칭하는 문자일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약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6명의 추정각수 가운데 용장사의 각수로 활동했던 12명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약명을 사용한 각수가 용장사의 각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단일 사찰의 판본에 등장하는 약명만으로는 이 이상의 분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용장사의 판본에 약명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용장사 간행본의 약명사용 추정각수 현황

번호	약명	추정인물		
		이름	등장위치	각수활동
1	玉	玄玉	금강경 변란	1635년 松廣寺
		敬玉	불설광본대세경 간기	1681년 双溪寺
		玉晶	도서 변란	1570년 無爲寺
		玉明	중례문 변란	1606년 八空本寺, 1609년 桐華寺, 1675년 華藏寺
2	元	宝元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1638년 靈井寺
		信元	중례문 변란	1613년 安興寺
3	林	林之先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4	해	法海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5	云	成云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6	成	性玄	중례문, 결수문 간기 능엄경 간기	1635년 龍藏寺, 1635년 松廣寺
		成云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成梅	능엄경 변란	1607년·1608년 송광사, 1611년 能仁庵, 1628년 隨緣寺
		覺性	능엄경 간기	1604년·1611년 能仁庵
7	丁	玄淨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信正	능엄경 변란	1614년 双溪寺
8	申	信會	능엄경 변란	1613년 安興寺
		信正	능엄경 변란	1614년 双溪寺
9	川	道慈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10	還	修還	결수문 간기	1627년 盤龍寺, 1635년 龍藏寺
11	玄	性玄	중례문, 결수문 간기 능엄경 간기	1635년 龍藏寺, 1635년 松廣寺
		玄淨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12	上	上岑	능엄경 간기	1569년·1570년 安心寺, 1573년 龍天寺
		法尙	능엄경 간기	1632년·1634년 龍腹寺, 1633년 釋王寺

번호	약명	추정인물		
		이름	등장위치	각수활동
13	仁	印和	중례문, 결수문 간기 선요, 법화경 변란	1604년·1611년 能仁庵, 1607년·1608년 松廣寺 1635년 龍藏寺, 1657년 天冠寺
		双印	능엄경 변란	1649년 通度寺, 1661년 靈井寺
		印軒	능엄경 간기	1567년 西臺寺, 1575년 安心寺, 1576년 普薩寺, 1588년 雲門寺
14	경	敬訓	능엄경 간기	1634년 福泉寺, 1682년 普賢寺
		敬天	불설광본대세경 간기	1616년·1617년 修會寺, 1634년 天冠寺
		敬玉	불설광본대세경 간기	1681년 双溪寺
15	淳	學淳	결수문 간기	1618년·1635년·1647년 松廣寺, 1635년 龍藏寺
16	太	太和	능엄경 변란	1608년·1610년 松廣寺, 1611년 能仁庵
		太心	능엄경 간기	1663년 表訓寺, 1664년 興國寺
17	行	六行	법화경 변란	1638년 靈井寺, 1661년 神興寺, 1663년 表訓寺
18	日	杜一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勝一	능엄경 간기	1622년 清溪寺
19	法	法海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法云	금강경 간기	1570년 安心寺, 1572년 臣興寺
		法行	금강경 간기	1638년 靈井寺, 1681년·1683년 雲興寺
		法胡	금강경 간기	1628년 龍腹寺
20	双	双淳	절요 간기	1604년 能仁庵, 1614년 双溪寺
21	哲	哲悟	금강경 간기	1647년 普賢寺, 1649년 通度寺
22	金	金光立	중례문, 결수문 간기	1635년 龍藏寺

4.3 참여인원 분석

4.3.1 난외 시주자

난외 시주자가 개관불사의 어느 부분에 一助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불서를 간행 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1635년 용장사에서 간행한 14종의 판본에는 모두 난외에 시주자가 가입되어 있다. 용장사 간행본 14종에서 연속되는 人名은 동일인으로 파악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결과 모두 1,043명이 시주에 참여하였다. 다음의 <표 19>는 용장사 간행본의 난외 시주자 가운데 2회 이상 참여한 人名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용장사 간행본의 난외 시주자 및 중복참여 현황

번호	개관시기	4월					8월					9월	참여 경전	
		이름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1	크수					○	○							2종
2	크玉					○		○						2종
3	高億金					○			○					2종
4	金大男					○						○		2종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번호	개관시기 이름	4월					8월					9월	참여 경전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5	金芑文						○				○			2종
6	金莫同						○						○	2종
7	金白云					○							○	2종
8	金山伊					○					○			2종
9	金氏				○			○						2종
10	金億守					○		○						2종
11	芮伊					○		○						2종
12	德今					○							○	2종
13	德礼					○	○							2종
14	德只					○					○			2종
15	德浩		○			○								2종
16	芑介			○		○								2종
17	芑屎					○		○						2종
18	莫德					○							○	2종
19	明玉					○			○					2종
20	文介					○							○	2종
21	朴男					○		○						2종
22	朴德水					○							○	2종
23	朴德仁				○			○						2종
24	朴世						○				○			2종
25	朴朱				○			○						2종
26	朴千梅					○		○						2종
27	方英世								○	○				2종
28	乌德						○						○	2종
29	乌之	○											○	2종
30	本介				○			○						2종
31	徐出生				○			○						2종
32	孫五世							○	○					2종
33	順德	○				○								2종
34	申金				○			○						2종
35	信學				○						○			2종
36	阿亡介					○					○			2종
37	愛介						○					○		2종
38	業介								○				○	2종
39	業眞					○							○	2종
40	玉代						○	○						2종
41	元金				○			○						2종
42	元海		○		○									2종
43	尹希天					○	○							2종
44	李德立								○				○	2종
45	李得仁							○	○					2종

번호	개관시기 이름	4월					8월					9월	참여 경전
		초심	선요	수록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46	李彦武								○			○	2종
47	李滉同									○	○		2종
48	仁今							○	○				2종
49	印和		○						○				2종
50	任仁浩					○	○						2종
51	長貴仁						○	○					2종
52	滉介					○	○						2종
53	崔桂龍				○			○					2종
54	春介					○						○	2종
55	春德									○		○	2종
56	春日							○	○				2종
57	風月						○				○		2종
58	鶴代						○					○	2종
59	海生					○						○	2종
60	海信							○				○	2종
61	海春				○			○					2종
62	今春					○	○			○			3종
63	金大春					○		○				○	3종
64	金德水					○	○	○					3종
65	夏今					○		○				○	3종
66	莫介					○				○		○	3종
67	白如還				○			○	○				3종
68	性敏		○				○	○					3종
69	順卜					○	○	○					3종
70	愛春				○	○		○					3종
71	彦今						○		○			○	3종
72	元哲						○	○				○	3종
73	春代			○		○		○					3종
74	穉今					○	○				○	○	4종
75	德伊	○		○		○		○					4종
참여인원분포		3	4	3	13	37	21	32	13	11	5	23	·

한편 각 간행본의 중복 참여자는 2종 참여자 61명, 3종 참여자 11명, 4종 참여자 2명인데, 「능엄경」과 「서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능엄경」과 함께 참여한 경전을 살펴보면 「능엄경」과 「서장」에 참여한 시주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능엄경」과 「불설광본대세경」에 참여한 시주자가 11명, 「능엄경」과 「금강경」에 참여한 시주자가 8명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서장」과 함께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인 경전은 먼저 살펴본 「능엄경」을 제외하고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로 두 경전에 함께 동참한 시주자는 11명이다.

4.3.2 化主

化主는 施主者들을 教化하여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주도하는 소임이다. 그러므로 간기에 화주로 기입된 인물은 해당 사찰의 개관불사를 주도한 사람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찰의 개관불사에 필요한 음식, 재물, 인력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募緣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용장사의 간행본에는 化主, 化士, 丁化士, 板化士, 大化士, 幹善大化主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 화주가 등장하고 있다.

용장사의 개관불사에 주도적인 활동을 한 인물은 戒學과 性宗이며, 戒學은 『금강경』을 제외한 13종의 판본에 화주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계학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화주는 佛法教化를 해야 하는 소임으로 승려들이 담당 하지만 승려가 아닌 일반인 화주도 일부 간행본에 기입되어 있다. 이는 짧은 기간 14종의 대규모의 판각이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승려 외에 일반인들도 화주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20>은 용장사 간행본에 기록된 화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0> 용장사 간행본 化主 현황

소임	4월					8월					9월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업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化主			崔根 金水平 金善文 性宗						戒學		
化士	崔根 金水平	崔根 金水平		崔根 金水平 金善文 金得龍 李應每			戒學	戒學		戒學	
丁化士							李應每	李應每			
板化士					性宗		性宗	性宗			戒學
大化士	戒學	戒學	戒學	戒學	戒學						
幹善 大化主						性宗					

4.3.3 別坐

供養主는 개관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찰에 머무는 인원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중요 소임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1635년 용장사에서 간행한 14종의 간행본에는 供養主 소임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절의 소임 가운데 공양주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임이 別坐인데, 별좌는 우선적으로 불단에 올리는 음식을 맡으며 供養間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총괄하는 소임이다. 그러므로 공양주가 기록되지 않은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별좌가 공양간의 전체적인 소임을 맡아 개관불사 기간에 참여자들의 식사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4종의 판본 가운데 『금강경』을 제외한 모든 간행본에 별좌가 기입되어 있다. 주로 1-2명이 맡았으며, 13종의 판본에는 勝梅가 별좌로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용장사 개관불사 기간 동안 勝梅를 중심으로 供養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용장사 간행본 別坐 현황

소임	4월					8월					9월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別坐	勝梅 克念	勝梅 克念 僅日 三性 僅主	勝梅 克念	勝梅 克念	勝梅		勝梅 克念	勝梅 克念	勝梅	勝梅	勝梅

4.3.4 施主

施主는 사찰의 불사 및 승려들의 생활을 위해 바라는 것 없이 재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한다. 불서의 간기에 기록된 일반적인 시주질을 보면 ‘승려 및 개인 시주자’, ‘부부가 함께 시주에 동참한 兩主로 기입된 시주자’, ‘가족들에 의해 靈駕로 기입된 亡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장사 간행본의 施主秩은 크게 특정물품(음식, 목판, 경전 등)에 대한 대시주, 활동과 겸하여 재물을 크게 보시한 대시주, 재물만을 크게 보시한 대시주, 그보다는 적은 재물을 보시한 시주로 구별된다. 다음의 <표 22>는 용장사 간행본에 기록된 특정물품을 보시한 대시주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22> 용장사 간행본에 나타난 특정물품을 보시한 대시주

품목	4월					8월					9월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金剛經						李春男 兩主					
諸經 供養	崔繼長	崔繼長		崔繼長 兩主	崔繼長 兩主						

43) 金石木兩主, 李愛當兩主, 彥德兩主, 必代兩主, 遺光比丘, 金金兩主.

품목	4월					8월					9월
	초심	선요	수륙	천지	능엄	금강	서장	법화	절요	도서	불광
諸經 布施	申福	申福		申扑 兩主	申福 兩主						
供養			崔繼長 兩主			朴眞玄 兩主	崔繼長 兩主		崔繼長 兩主		海令 靈惠
布施			申扑 兩主		裴彦卜 兩主	宝俊의 6명 ⁴³⁾	申福 兩主		申福 兩主		
烹板 釜子					鄭必世						
板子	徐瑞福		法浩		金應招 兩主 法浩	法浩					
板						徐世卜 兩主					
食鹽				法淳		秋貴卜 兩主					
未醬			玉林 思信	玉林	玉林						
松烟					性悟 禪淨						
引勸 兼	大僅	大僅 思信	大僅	大僅	大僅 金水平 兩主				大僅	大僅	
住持 兼			敏雄	敏雄	敏雄						

경전과 관련하여 대시주를 한 인물은 『금강경』을 시주한 李春男兩主와 4월에 간행된 판본 6종 중 5종의 경전을 대시주한 崔繼長, 神福兩主가 있다. 경전을 판각할 수 있는 목판은 法浩가 3회 시주하였으며, 대중들이 먹을醬은 玉林에 의해 3회, 먹의 재료인 松烟은 性悟와 禪淨에 의해 1회 대시주가 이루어 졌다. 활동과 兼하여 대시주를 행한 인물로는 大僅比丘와 敏雄比丘가 있다. 이 중 大僅比丘는 인권 검 대시주로 총 7차례 동참하고 있어 용장사 개관불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용장사에서 개간한 14종의 간행본 간기에 기입된 시주자는 총 569명으로 승려 180명(31.7%), 일반인 389명(68.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시주자 가운데 특정물품 대시주자 77명(13.5%), 대시주자 77명(13.5%)으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물품을 대시주했던 인물들이 다른 간행본 개관에서 일반 대시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시주자는 415명(73%)이 기입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용장사 간행본 전체 시주자 현황

연번	서명	특정물품 대시주	대시주	시주	구성	
					승려	일반인
1	誠初心學人文	崔繼長 외 3명	·	朴松山 외 33명	7명	31명
	蒙山和尚法語略錄					
2	高峰和尚禪要	崔繼長 외 3명	印軒	·	3명	·
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崔繼長 외 10명	李僅水	·	5명	7명
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崔繼長 외 7명	宏神 외 2명	林水珠	5명	7명
5	楞嚴經	崔繼長 외 16명	宋神 외 11명	妙熙 외 164명	49명	146명
6	金剛般若波羅蜜經	李春男 외 20명	·	大僅 외 19명	4명	37명
7	大慧普覺禪師書	崔繼長 외 3명	裊彥福 외 8명	成德 외 9명	9명	14명
8	妙法蓮華經		李太福 외 20명	吳成福 외 3명	9명	16명
9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崔繼長 외 4명	金彥敬 외 3명	勝梅 외 44명	39명	15명
10	禪源諸詮集都序	大僅	裊彥福 외 5명	天測 외 44명	23명	29명
11	佛說廣大歲經	海令 외 1명	崔繼長 외 20명	崔彥斤 외 90명	27명	87명
	佛說地心陀羅尼經					
	天地八陽神呪經					
합계		77명	77명	415명	180명	389명
비율		13.5%	13.5%	73%	31.7%	68.3%

5. 맺음말

이상 1635년 전라도 태인의 용장사에서 간행된 14종의 불서에 대하여 서지적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용장사는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뒤 1630년에 지진장로와 승려 경칙 등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중창하였고, 1635년에 계학의 주도하에 소요 태능, 벽암 각성 등과 시주자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개관불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개관된 용장사 간행본 불서의 판각시기를 보면, 1635년 4월에 개관한 판본 6종, 8월에 개관한 판본 5종, 9월에 개관한 판본 3종으로 4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개관불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용장사에서 간행된 불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종의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전류가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의식집류가 간행되었다. 불서의 주된 용도로 구별하면 경전류는 「불설 광본대세경」을 제외한 경전이 모두 전통강원의 이력과목들로 학습의 용도가 매우 높은 경전이며, 종의류의 불서들은 「몽산법어약록」을 빼고 5종이 사미·사집과의 교육과목이다.

셋째, 용장사의 간행본에 등장하는 각수는 간행본 가운데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천지명양 수륙재의찬요」의 간기에 소임의 표기를 ‘劄子’로 기록하여 모두 12명이 확인된다. 2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간행본에서는 관심부 어미부분에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약식문자가 음각 또는 양각으로 관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식문자는 전체 55종이 확인되며 가장 많이 등장한 약명은 ‘玉’과 ‘元’으로 7종의 경전에 각각 36회, 28회 확인된다.

넷째, 化主는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개관불사를 진행할 때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募緣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용장사의 불서 간행에서는 戒學과 性宗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중에 계학은 『금강경』을 제외한 13종의 판본에 화주로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용장사의 개관불사는 계학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용장사에서 개간한 14종의 간행본 간기에 기입된 시주자는 총 569명으로 승려 180명(31.7%), 일반인 389명(68.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행본의 施主秩은 크게 특정물품(음식, 목판, 경전 등)에 대한 대시주, 활동과 겸하여 재물을 보시한 대시주 등으로 구별된다.

경전과 관련하여 대시주를 행한 인물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시주한 李春男兩主와 4월에 간행된 판본 5종 중 4종의 경전을 대시주한 崔繼長, 神福兩主가 있다. 경전을 관각할 수 있는 목관은 法浩가 3회 시주하였으며, 먹의 재료인 松烟은 性悟와 禪淨에 의해 1회 대시주가 이루어졌다. 활동과 겸하여 대시주를 행한 인물로는 大僅比丘와 敏雄比丘가 있는데, 大僅比丘는 인권 겸 대시주로 총 7차례 동참하고 있어 용장사 개관불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2013.
 文化財管理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3 전라북도·전라남도 1. 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전주문화재단. 『완판본백선』. 전주: 전주문화재단, 2012.
 정읍시립박물관. 『태인방각본』;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판도라. 정읍: 정읍시립박물관, 2016.

[논문]

- 남권희. “『동여비고(東輿備攷)』의 사찰(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97-142.
 노기춘. “順天 松黃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 壬亂以前 有刊記 佛書を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447-476.

- 노기춘. “順天 松黃寺 開板佛事に 관한 연구」Ⅱ；壬亂以後 有刊記 佛書を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第26輯(2003. 12). 303-346.
- 손성필.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359-379.
-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書誌學研究』 第63輯(2015. 9). 119-148.
-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간행의 양상.” 『다산과 현대』 3(2010. 12). 51-77.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12). 433-470.
- 옥영정.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일고.” 『書誌學報』 第30號(2006. 12). 63-88.
- 이상백. “조선시대 안동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한 고찰.” 『奎章閣』 46(2015. 6). 121-148.
-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書誌學研究』 第58輯(2014. 6). 465-495.
- 임기영. “安東 廣興寺 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9). 437-489.
- 임기영.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295-357.